

1. 과제를 결정하는 要因

정치발전의 과제를 두개의 次元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의 차원은 정치가 발전해서 이룩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겠는가를 묻는 목표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의 차원은 정치발전이 어떠한 장소에서 혹은 어떤 제도속에서 이룩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장소의 차원이다. 70년대의 우리의 경험이 요청한 새로운 목표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는 옛 慣行의 실패에서 그 주장의 정당성을 찾는다. 특정 관행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검토하는 기준은 특정관행이 내세운 목표를 이룩했는가 안했는가를 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특정관행의 성공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지녀야 할 最貴의 것을 파괴하지는 말것을——이 최귀의 것을 더욱 더 존중해 나가지는 못할망정——생각할 수 있다. 예를들어 富國強兵이라는 목표를 한 정치체제가 내세웠는데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의 길을 갈뿐 아니라 이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공포중에 걸려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것을 보류하며 이웃끼리 나누워 먹을 밥이 없게 되며 사람들은 동물과 같이 원시적 본능충족수준으로 타락함으로 自慰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이는 실패의 관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세가지의 새 목표가 묵은 관

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70년대라고 생각한다.

(1) 부당하게 낮고 없게 된 사람을 보살피야 한다.

(2)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되 부당하게 높고 있게 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동의에 입각한 양보에 의해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이상의 두 목표를 수행한 개인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학교나 직장에서 제적 해직되며 나아가 옥고를 치르더라도——이 일을 해내야 한다.

이 세가지 목표가 새로운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 이는 70년대에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못하게 된 국민일반들이 부당하게 낮게 된 사람의 예가 된다. 산업선교나 카톨릭 농민회의 보살핌을 받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부당하게 없게 된 사람들이다. 비록 위 사람은 부당해도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방법은 정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 이들이 70년대의 양심범들이다. 이들 중 아무도 폭력행사를 내용으로 한 행동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없다. 이들이 한 일이 기껏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발언을 한 것 뿐이다. 이 점에서 폭력의 반대어는 비폭력이라기 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격자체를 존중시 하는 것을 뜻한다. 외모의 좋고 나쁨으로 인간을 차별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물질주의를 초월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육체와 물질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지금 여기>에 매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발전을 촉진한 의미 있는 場은 (1) 反體制운동 (2) 체제내개혁 (3) 민중적 집단운동 (4) 사회집단의 형성 (5) 통치집단의 형성 등 다섯이다. 이 다섯의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운동의 장은 장의 단순한 분류만이 아니라 發展順位를 보여준다. 긴급조치 4호니 9호니 등을 위반해 구속된 인사들은 반체제운동자이다. 반체제운동자의 수는 소수이다. 그러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력한 것이 아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한다.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은 소량만 있으면 된다.

체제외에만 명백했던 악이 체제내에서도 알게 되는 단계가 체제내 개혁의 단계이다. 우리의 경우 중도통합론과 참여주의 개혁을 屈從의 구실로 말했던 체제내 야당 신민당이 민주회복을 내세우게 된 것이 체제내 개혁의 시효이다. 민중적 집단행동의 예는 釜馬사태이다. 사회집단의 형성운동으로 볼수 있는 몇가지는 달라져가는 新聞, 자율을 내세우는 大學, 체질개전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신민당, 어용 위원장을 추방하는 노동조합 등이다. 改憲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정은 통치집단형성을 위한 일정이다.

우리의 近世史는 이 5개의 장에 걸친 운동을 우리 겨레가 망국을 초래한 韓末政府와 독재자 李承晚씨에 대하여 해 온 것을 보여 준다. 한말정부에 대항한 반체제인사의 시작은 衛正斥邪사상을 펴 崔益鉉이다. 斥邪疏를 올려 江華條約 교섭을 반대해 옥산도에 그가 유배된 해가 1876년이다. 8년후인 1884년에는 金玉均·朴泳孝 등 체제내 인물들이 甲申政變을 일으켜 開化思想을 펴 王을 경유궁에 옮겨 일본군으로 호위케하고 민영복·민태호등 대신 6명을 살해한다. 이 체제내 운동이 꺾인후 만 10년만인 1894년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해에 전라도 고부군민이 군수 趙秉甲의 탐학에 항거하여 東學接主 全瑔準의 영도하에 항쟁이 일어난다. 이 항거가 펴낸 사상은 東學思想이다. 의미 있는 사회 집단이 생겨난 것이 민중의 봉기 직후인테 전국 각처에서 官民간의 조정기구인 執綱所가 마련된 것이 이 무렵이다. 徐載弼·尹致昊 등 30여명이 獨立協會를 결성한 날이 1896년 7월 2일이다.

이에 앞서는 3개월전에 「독립신문」이 창간을 본다. 이상과 같은 지도에 상응하여 한말정부는 경신되어야 하였다. 이승만씨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나선 민족지도자는 金九선생이다. 단독정부수립이라는 새 상황에 逆行을 한 김구씨는 반체제인사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해에 피살된다. 이승만씨와 동조해 같이 건국을 하며 그 밑에서 고관이 된 사람들도 이승만씨의 정권욕에 싫증을 느끼게 되는 사태가 곧 발생한다. 이것이 1952년의 釜山政治波動이다. 이 파동후 사흘되던 날 金性洙부통령이 이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에 사표를 제출한다. 이승만씨에 대항해서 대통령으로 입후보한 신익희 조병옥 조봉암 등은 다 이승만씨와 더불어 체제내에서 고관을 지낸 사람들이다. 이승만체제에 저항한 민중봉기는 4.19이다. 民主黨이 이승만씨와 민중사이의 조정역으로 등장한 의미 있는 사회단체이다. 새로히 형성된 통치체제는 제 2 공화국 정부이다.

처음 운동의 장 셋인 반체제운동, 체제내 개혁, 민중적 집단운동은 각각 그 시대를 지도하는 이념을 창출해 내는 특징을 갖는다. 이 세개의 장을 합하여 〈思想의 場〉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말의 경우는 衛正斥邪 開化 그리고 東學思想 등을 세개의 場이 창출했다. 체제내 개혁의 특징은 開化를 처리하는 것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한말의 체제내 이념이 개화였다면 이승만씨의 체제내 이념은 이 개화의 결핍에서 오는 근대화정책 결핍을 특색으로 한다. 70년대 체제내 이념은 過多 近代化政策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구씨의 이념은 민족주의이며 4.19의 정신은 민주주의이다. 70년대 반체제의 이념은 민주주의이며 70년대의 민중의 욕구는 고도경제성장의 수정이다. 망국 한말정부에의 정책투입을 역할로 해 성립이 된 의미 있는 사회단체인 독립협회가 독립을 표방했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근세사는 이념의 흐름

을 민족주의 → 민주주의 → 자본주의 수정으로 이어 오고 있다.

2. 파제의 內延

설명의 편의로 정치발전의 장을 사상 사회집단 통치집단의 셋으로 간주될 때 정치발전의 內延을 사색해 보는 表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가 있다.

목표 장	1.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2. 비폭력주의	3. 비물질주의
A. 사 상	A1	A2	A3
B. 사회집단	B1	B2	B3
C. 통치집단	C1	C2	C3

이 表가 보여주는 아홉개의 세포들은 따라서 정치발전을 통하여 형성해야 할 세포들이다. 민중적 욕구가 만들어 낸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평등사상(A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 내는 학문분야는 社會經濟學이다. 비폭력주의(A2)를 이론화하는 학문은 민주주의 정치학이다. 비물질주의(A3)의 기수는 철학 혹은 실존철학이다.

이 세개의 사상은 共存해야 하는 사상이다.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을 반영하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며 극우의 정치사상은 A3만을 강조하여 심지어는 새마음 갖기만을 강조한다. 타락한 보수-민주정당이 지니는 생각은 A1과 A3를 捨象해 버린 A2만의 상태에서 생기는 사상이다. 사상의 원류가 宗教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찰에서 볼 때에 A3만을 강조하다가 인구 9할이 기독교신자인 나라 전체를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만 나라가 帝政러시아이며 A1 A2 A3의 3者が 결합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인구 2할 밖에 안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서 독재자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帝國이다.

이 세개의 사상중 제 1차로 가져야 할 사상은 비참한 사람

들에 대한 관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 의하여 학대를 받아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보살핀다. 이 세상을 불쌍하게 안 봤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필요가 없다. 除暴救民의 동학사상이 하늘에서 무조건 계시된 것은 아니며 제독구민을 해야 할 바참한 세상이 있어서 이 사상이 계시된 것이다.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다음으로 발전 되는 사상은 비폭력주의이다. 성서는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해 살해를 한 큰 아들 카인의 비극 후에 하나님이 카인을 아무도 못 죽이게 카인에게 꼬리표를 붙여줘 그를 죽지는 않게 해 준다. 아벨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카인까지도 살려야만 하는 마음으로 승화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취조 등 고문을 심하게 당했던 친구로 부터 「나는 감방에서 파리도 안 죽었다. 파리를 죽이면 그가 얼마나 아플까 해서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친구는 매를 맞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못 때리겠다는 것이다.

B1을 상징하는 사회집단은 무산자 독재를 내세우는 공산당이며, B2를 상징하는 사회 집단은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보수민주야당이다. B3을 상징하는 사회집단은 순수학문에 전념하는 대학과 순수신앙에 전념하는 종교단체이다. 사회집단의 경우 B1 B2 B3의 성격을 다 구비한 사회단체이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起點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단체들은 自由의 구현단계에서는 교회 대학 언론기관 야당들이며 平等의 구현단계에서는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비보수정당 등이다. 이와같은 의미있는 사회단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성과정을 밟는다.

(1) 의미 있는 사회단체(B1)를 官과 기득권자가 박해를 했는데도 박해를 한 사람들이 보복을 안 받는다(B2).

(2) 사회단체들이 박해자가 있는데도 그의 존립을 계속하면서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充員된다(B3).

(3)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사회정의를 구현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회생을 당하기도 한다(B3).

(4)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조성하는 사회압력이 통치집단에 가하여져 통치집단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통치집단의 요원으로 등용된다(B와 C와의 협조관계).

통치집단이 정치발전을 역행하는 경우 통치집단은 국민일반에서 불수 있는 부적응과 문제점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된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실정을 의면한 채 정부가 밀고가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읽지 않더라도 조작된 통계가 제시하는 업적의 시위, 예를 들어 고도 경제성장과 아무도 전쟁터에 가 본 일이 없는데도 전쟁을 한다는 안보태세의 강화 같은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현대적 표현은 일면 전설 일면 국방이 되며 고전적 표현은 富國強兵政策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압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시행방법의 현대적 표현은 권위형정치이며 고전적 표현은 武가 된다. 정부가 국민을 목적사 하지 않고 수단시하는 것이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국민을 단순한 정치동원의 대상자나 경제성장의 일꾼으로서의 技能保持者로 보는 것이 이 예이다.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과 정치발전에 순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측면중 전자를 강조한 층은 한국을 식민지화

한 일본의 제국주의자와 해방후 강압적인 권위형 정치를 편 집 권층이다. 이들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너절한 것만을 모으는 전문가들이다. 다행히 후자를 강조하는 역사학자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이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통치전통 중 적어도 (1) 李朝의 정책목표가 부국강병이 아니라 人道的고려에 집착한 仁이었다는 것 (2) 프로그램의 시행방법이 武가 아니라 文이어서 최고급 官僚인 영의정의 선정까지도 공개경쟁시험인 科擧를 통했다는 것——이 관례는 그 당시의 세계의 관례중 회귀한 것이다. (3) 피치자인 국민일반은 잘살기만 하면 만족을 하는 동물수준의 국민이 아니라 못 사는 것, 예를들어 衣食住는 원무명옷을 입고 김치, 김치가 없으면 된장, 된장이 없으면 간장을 먹으며 살기는 초가삼간에 사는 것에 自足하는 老莊思想의 道士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량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계의 농정적 전통은 오늘의 통치집단이 上記 表중 C1, C2, C3를 택해나갈 수 있다는 原型을 제시한다.

사회집단과의 교섭이 가능한 통치집단은 따라서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사회내에 존재하는 문제점해결에 관심을 둔다. 통치집단 내에서는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치집단 외부에 있는 국민들과 아래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에게 신경을 쓴다. 통치자는 외부에 있는 국민을 통치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집단을 존립케 하는 주권자로서 대한다. 이 경우 통치집단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치집단의 바람직한 행태를 생각할 때마다 상기되는 것은 老莊哲學, 無爲思想이다. 노장철학은 국민을 위해서 평정한 일을 하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마구 눌러 국민을 수단시 한 통치체제와 이와같은 통치체제의 要員志願生인 국민일반에게 권고될 代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아무일을 하지 말 사람은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는 참으로 할일을 해야 할 이가 국민스스로이기 때문이다.

3. 전 망

이 글이 제시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통치집단이 형성될 전망이 있는가?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같은 통치집단이 형성될 수 없었던——심지어는 통치집단 형성 직전까지의 의미 있는 운동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과거에서의 실패예를 보아야 한다. 동학혁명에 집강소라는 사회집단을 형성케는 하였으나 한말정부를 개혁치는 못했고 3.1운동은 상해의 임시정부라는 단체를 만들게 했으나 이를 우리의 실질적 통치집단으로 부상시키지는 못했다. 4.19의 결과 등장한 실권자 민주당의 존속기간은 1년을 넘지 못했다.

앞서 두 경우의 실패원인은 동학혁명의 경우는 소총, 또한 3.1의 경우는 만주 중국을 침략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제국의 他律的 간섭이다. 4.19의 실패원인은 조직과 관리능력을 가진 실력자 군의 등장이다. 국민의 정치발전시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놓인 힘 앞에는 후퇴해야 한다.

오늘의 경우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정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外在者는 북한일 수가 있다. 또한 安保를 내세워 민주화를 안해 온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美中 그리고 日中關係가 개선이 된 오늘 이 국제관계가 美蘇對立으로 더욱 공고히되어야 할 시점에서 남북간의 군사적대립을 가짐으로 불가피하게 미·중공, 일·중공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국제상황이다. 10.26사태 후 미국관변측은 계속 중국방문을 해 왔는데 이때마다 이들의 접촉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유효한 공헌을 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민주화의 방해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外在者는 미국이다. 가쓰라·태프트 密約으로 즉 미·일간의 밀착으로 한

국은 일본에 의하여 강점되었다. 과거 약 20년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79년에 방문하여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정치발전을 권고한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권위형 정치체제를 축복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정치발전을 촉구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월남과 이란의 사태를 겪은 미국은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개선에 불가능하며 사회가 신뢰하지 않는 정부는 강력하지도 않다는 것을 아마 지금쯤은 배웠으리라고 보여진다.

오늘의 우리 실정은 4.19직후와는 달리 군만이 실력자입니다. 강력한 정치적 통합을 통하여 성장된 경제체는 경제자유와 민간주도경제를 시행해야만 오히려 더욱 경제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성숙하고 있다. 知識社會의 성장도 눈부시다. 4.19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리의 대학이 배출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人的지원을 우리의 교육기관이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며 세계기능 올림픽에서 우리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70년대 反體制學生을 많이 낸 대학은 공부를 안하는 대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대학에서였다.

민중적 집단운동이 과격해 지면 정치체제가 우경화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체제의 우경화란 이 글이 제시하는 발전순위에서 볼 때에 사회집단과 통치집단이 형성되지 않음을 지칭한다. 사회집단의 형성이란 이들 집단의 자율화를 일컫는다. 통치집단의 형성이란 국민합의에 의한 정부수립을 일컫는다. 민중적 집단운동도 없을 정도의 무력한 민중도 소망이 없는 민중이지만 집단운동 자체만을 목적삼는 민중도 소망이 없는 민중이다. 다행히 학생과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의 민중은 사회의 건전한 활성화 전망이 전무할 때에만 집단운동을 펴왔다. 민중적 집단운동의 과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음 두 가지이다.

(1) 자유라는 이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화를 위한 일정과 절차를 공화당 제1차 그리고 재야의 삼자를 대표하는 실력자 사이에서 결정하는 일이다. 이 삼자의 합의를 얻어내는 당사자는 현 과도정부여야 한다. 공화당이 실권자인 이유는 몇가지의 현명한 역할 수행이 있는 경우 공화당이 정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취할 역할 안에는 (1)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의 철폐를 내세울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국민 앞에 표시할 것 (2) 유신 이전의 근대화정책을 계속한다고 할 것 (3) 국민 일부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더 부패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국안정을 위해서 정치현장에 계속 공화당이 남아 있겠다고 말할 것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이 퇴장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공화당이 70년대 기술들의 공직을 유지해 주지는 못함당정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며 이들이 불안때문에 우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복없는 정치를 구현하는 상정을 공화당의 존속에서 찾아야 한다.

제1차 하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의 주요 실권자의 하나는 제1당국이다. 그간 국민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화에서 제외된 분야가 재야이다. 그러나 재야만이 민중적 집단운동을 비물리적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력자이며 재야만이 정치발전을 위한 운동에 시발을 건 사람들이다. 재야가 이와같은 합의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재야가 얻어내는 직접적 이익은 재야인사가 입을 수 있는 신체면에서의 손실이 없게 되는 일이다.

(2) 평등이라는 이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과도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의 집단운동을 삼가하게 할 최소조건으로 최저임금제 실질보험 그리고 이종곡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 3권이니 경영참가권이니의 보장보다 생존권의 보장이 앞선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생존을 하게는 해주고——안락한 생활이 아니라——참으라고 말을 해야 그 말이 통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의 여유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하며 부당한 재산도피와 정치 현금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상의 두 조치이외에 반공, 미·일 등 우방과의 친선, 평화적 남북대화 등 건전한 외교관계의 지속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의 실력자 3자중 아무도 건전한 외교관계 유지에 역행할 자는 없을것 같이 보인다. 상기 두 조치는 대체로 기득권자의 자기전제를 기반으로 해 성취될 수 있는 조치이다. 사회단체들의 자율화 움직임은 정치의 자율화 움직임보다 쉽게 이룩될 전망이 높다.

오늘의 우리의 정치 발전은 통치집단형성에 몇차례에 걸쳐 실패한 한국근세사에서 볼때에 처음으로 이룩할 과제이다.

4.19의 경우보다 우리의 경험이 더욱 더 축적된 것은 사실이다. 지금의 35才 이하의 人口는 다 해방 후에 출생한 인구들이다. 지금의 중전지도층은, 식민지의 권위형 정치 하에서 교육받은 사람만은 아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는 4.19 때와는 다른 사람을 갖고 있다. 오늘의 우리의 정치발전은 남북대화를 성숙화해 나가는데 기본조건이 된다. 남북대화가 기대하는 궁극의 목표인 남북통일이란 평화적 통일을 지칭하는데 평화적 통일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통치요원의 선출을 내용으로 할 것이 명백하다. 통일에의 대비를 위하여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발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제 1 부

權力の 본질

매카더즘과 권력

권력과 정의의 패러독스

헌법은 강권만을 보호할 순 없다

국가의 기능과 민중의 길

知性と 권력

체제와 민중 사이

할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2년간의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경제도 그렇다고 본다. 분배구조를 개선하며, 정치지향적 시장구조를 고치며,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며, 금융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오늘의 과제는 재래식 누름 일방적 방식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끝으로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밖에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어디 2년전 10월엔 이 소수나마 있었는가 말이다.

사실 오늘의 문제는 이 「소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소수」를 零으로 만드는 작업이 오늘의 정치가 해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종교인을 교회에,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 돌아가게 할 책임은 종교인과 학생에게 있지를 않다. 종교인이 교회에,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 돌아가게 할 작업 안에는 아무래도 다음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한다.

1. 최소한도의 견제장치가 전제하라는 것을 국민이 믿어야 한다.

2. 자유인권, 더 나아가서는 평등을 제도화해 나갈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안보를 빙자한 권력남용이 다스려지며 기업에 대하여 원태 의미의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국민이 믿게 되어야 한다.

이상 몇가지는 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법, 특히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있는 나라지 무엇이겠는가. 폭력이 통용하지 않으며 사람사이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그리워할 권리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부여된 천부의 권리이다. 만일에 이와같은 최소한의 욕구조차도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가령 국민투표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한가지가 분명해 지는데, 이는 강경과 나아가서는 대권만을 보호하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점점 더 정당해 진다는 점이다.

〈東亞日報, 1975년 1월 21일자〉

國家의 機能과 民衆의 心

현대국가의 기능이나 목표를 (1) 국가 존립업무 (2) 민주정부의 유지 (3) 자유의 신장 (4) 경제번영, 그리고 (5)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대분할 수가 있다. 국가 존립업무란 밖으로는 국방과 외교를, 안으로는 질서유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안보 업무를 지칭한다. 이 국가 존립업무는 정부가 수행할 제 1차적 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외국군대가 나라에 침범해 들어와 지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나라가 존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정부의 유지와 자유의 신장, 이 두 기능은 어떻게 보면 근대적 憲法의 내용이기도 하다. 근대적 헌법은 민주정부라는 조직을 편성하는 원칙과 국민의 基本權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정부의 유지와 자유의 신장 두 기능은 따라서 동시에 이룩될 기능이며 두 기능은 그 격이 같은 同格의 기능이다. 전자는 운영이라는 전체구조의 역할면을, 후자는 역할 속에서 국민이 움직여나갈 준거점으로서의 범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경제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대정부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 (1)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2) 경제규제업무, 그리고 (3) 국영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로전설 전력 기간산업 등과 같은 것으로 일단 형성된 시설을 경제활동을 하

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농업국가인 옛날로 말하면 治山治水 같은 것이 사회간접자본이다.

외국군대의 침입이 없고 국민이 자유스럽고 기업활동을 할 기초시설이 있으면 국민 각자는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狀況에서는 각양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주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다.

이 충돌을 정부가 통제하되 자의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타당도 높은 규칙을 정해 놓고 즉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규제업무가 여기에 필요해 진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기능을 장관이 아니라 독립위원회에서 맡는다. 이 독립위원회란 우리가 흔히 보는 위원회와는 다르다. 위원회의 임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그것보다 더 길며 위원의 일부만을 동일 대통령이 갈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들이 異時에 끝나게 해왔으며 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위원회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공무원의 결정이 정치적 편견이나 뇌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어 이해관계의 판가름을 그릇치면 정권이나 사회가 그만큼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國營企業의 기능은 국가가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의 福利에 맞는 경우 행정조직의 형태를 주식회사의 형태 같은 것을 택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조심할 것은 국영 기업을 국민의 복리에 맞지 않은데도 즉 돈만 벌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貧富의 격차를 정책적으로 좁히는 작업을 지칭한다. 노조의 육성,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감독, 稅制의 개혁,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의 예이다.

이상의 현대국가 기능들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중 무엇 하나만이 잘 수행되고 다른 것은 잘 수행 안되어도 좋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후진국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기능을 단번에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란 아무래도 무리인지 모른다. 그래서 몇개의 기능만을 우리 정부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몇개의 기능만을 수행하면 현대 국가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국가가 아니며 몇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말은 몇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과 같지도 않다. 「만」이라는 말은 강조를 의미한다. 이 강조가 갖는 무리에서 오늘의 혼미를 새겨보며 이 강조를 벗어나 전체 기능의 활성화를 이룩하는 창조에의 길을 이 강조의 順理化에서 찾아 보자는 것이 이 글이다.

混迷의 構造

후진국이 급한대로 내세우는 목표는 富國強兵이다. 현대어로는 일면국방 일면건설이다. 전술한 기능에서 이 강조 기능을 뽑는다면 국가존립 업무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둘이다. 이 두 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기능만의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두 기능의 수행>과 <두 기능만의 수행>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 것일까.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은 <두 기능만의 수행>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나, 증상은 다음의 두 계통에서 나타난다.

1. 두 기능이 성취해 내려고 하는 효과를 별로 못낸다.
2. 타 기능들의 마비로 부작용이 생긴다.

이 경우 효과 결핍과 부작용이 증거가 된다. 여기에서 효과 결핍이란 안보와 경제건설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安保

가 되고 안되고의 증거는 전쟁이 나봐야 안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 국민이 국가에 충성을 바치게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봄으로 평시에도 안보의 상태를 알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나 일본에 있는 교포들에게 의견조사를 하여 만일에 북괴의 남침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從軍하기 위해 즉시 귀국하겠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의 안보가 잘되어 가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운이 좋아 죽지 않게 되었다는 식의 반응이 많이 나타나면 안보가 잘되지 않은 증거가 된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교포들과 아랍 교포들은 相反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경제성장을 강조하여 경제가 성장하면 좋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며 경제 자원의 공급원인 農漁村이 고갈되어 농업의 경우 坪當생산액이 점점 줄어져 간다면 효과가 경제면에서 안나는 증거이다. 말세의 주요 특징은 自然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땅이 사람을 위하여 그 소출을 안낼 정도로 경제에서 무리를 해 만물이 탄식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타 기능들의 마비로 부작용이 생기는 형태는 다음의 세가지다.

1. 人權運動이 발생한다. 민주정부의 형성과 자유의 신장, 두 기능의 마비에서 오는 부작용은 인권이다. 인권운동은 극심한 非民主主義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이 부패한다. 경제규제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으며 국영기업은 기업성의 추구에만 몰두하게 되는 상태가 곧 이 두 기능의 부작용을 표시한다. 이 부작용을 한마디로 말해 공무원부패라 하는데 이 부패는 行政分權化가 파괴된 상태 즉 독립위원회나 국영 기업체로서의 自律性이 파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절대권력은 그만큼 절대로 부패하며 부패에서 문제가 되는 부패는 급행로 같은 부패

가 아니라 權力型 부패가 문제이다. 급행로 같은 것은 권력형 부패가 치유된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병이다.

3. 노동자들이 난동을 벌인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극단의 형이다. 사회 말단의 사람들이 난동까지를 벌이게 되는 前過程이 있다고 생각한다. 난동의 전 단계는 말단들이 마비 현상을 일으키는 단계이다. 이 마비현상을 1970년에 경험했으며 난동현상은 1971년에 경험을 했다.

부산참사, 남영호의 침몰, 와우 아파트 붕괴 등 담당자 말단의 양심마비 현상을 노출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70년이다. 마비의 시기는 난동도 없는 無爲의 해다. 이 무위의 해의 잔인한 고요함에 못견뎌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몸을 불사른 全泰壹의 죽음의 해가 바로 1970년이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71년은 난동의 해다. 그 두드러진 예는 KAL빌딩 난동사건과 廣州大團地 난동사건이다.

이 세가지의 부작용 노출을 지적인 문서로 2월 21일에 출옥자들이 발표한 「민주회복 구축자 선언」과 2월 28일의 韓國天主教 主教團 메시지를 들고 싶다. 민주회복 구축자 선언은 선언 사항이 5개가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세 카테고리리로 분류할 수가 있다.

人權運動

1. 우리는 개헌만이 민족의 살 길임을 확신하며 유신 헌법은 철폐되어야만 하고 지금까지 투쟁해온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양심적 민주 세력을 지지한다.
2. 소위 民青學聯사건 및 기타 긴급 조처 위반혐의로 아직도 구속중인 民主人士 및 현 정권 하에서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인사를 전원 즉각 석방하고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회복되어야 한다.

3. 소위 민청학련사건을 고문과 强壓으로 조작한 중앙정보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그 관련자는 즉각 처단되어야 한다.
4.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근로자 농민 도시민의 生存權은 보장되어야 한다.
5. 國民經濟 및 庶民生活를 파탄으로 몰아 넣는 특권 부정부패 분자는 즉각 처단되어야 한다.

亂動

公務員腐敗

한국천주교주교단 메시지는 제 3 항에서 「부정부패, 사회부조리, 인권유린 등을 고발하는 교회의 발언권은 계속 행사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 세 카테고리들 역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사회는 아무래도 혼미상태의 사회이다. 필자는 이 혼미상태의 그림을 야고보書 2 장 1 절부터 6 절까지에서 발견한다. 이 글이 말하는 <두 기능단의 수행>에서 생기는 증상과 야고보書가 말하는 증상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보기로 한다.

이글의 증상

야고보書의 증상

- 效果가 수행 안된다
1. 들으라 富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금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2.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萬軍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3.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宴樂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4. 너희가 옳은자를 定罪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亂動

腐敗

人權問題

부한자에게 고생이 임할리가 없고 부자가 울며 통곡할 리가 없다. 썩는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글썽 여기 쓴 대로 옷은 좀이 먹어도 또 금품은 몰라도 금이 녹스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들은 다 돈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다. 말만 들으면 돈을 모을텐데 이제는 말세가 되고 모은 돈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 품꾼의 소리와 옳은자의 하소연이 보이는데 이러한 울부짖음은 다 성서에 나오는 극한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한다. 아벨의 핏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苦役을 하는 신음 소리, 소돔 고모라에서 罪 짓는 소리—— 말하자면 의인을 죽이는 소리——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원수 갚을 것이 있는 과부가 무도한 법관 앞에 가서 말하는 소리 등과 그 질이 같은 것이다.

이제 좀 혼미의 구조가 분명해졌다. 기업주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고—— 만일 이를 하게만 하면 團體交渉이라는 장치를 통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와의 귀에 이르는 비명은 안 생길텐데—— 그 갚군의 돈뎌것을 가지고는 전전투자는 커녕 자기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공무원의 사치비를 대며 의인을 죽이는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다. 不當勞動行爲, 政治費의 지출, 불건전 투자 등이 기업주의 죄를 설명하는 현대어이다. 정치비의 지출을 대가로 기업주가 얻는 것은 특혜와 차관의 도입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때에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 가면 들어 갔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예수의 말씀이 재음미된다. 진리는 이러한데 오늘의 교회는 이 절대적 절망의 대상인 부자들을 회개시키려는 데에는 착안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주거나 부자를 축복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

전술한 원수 갚을 것이 있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보라. 원수 갚을 것이 있는 과부가 아닌 이에게 기도를 들을 하나님

도 안계신데, 부자이며 배 부르며 웃고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웃기는 기도이지 무엇이겠는가.

強調의 順理化

일면국방 일면전설을 강조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못되게 구는 정치를 많은 후진국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태의 통치자의 통치비결은 일도 안하면서 (1) 국가나 안보이니를 통치자에 이용하는 것과 (2) 국가내의 모든 개인과 집단들을 통치자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것으로 간주려 말할 수가 있다. 즉 통치자, 국가, 사회집단 등의 세 因子 간에 (1) 통치자 밑에 국가를, 그리고 (2) 통치자 밑에 사회집단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통치 권력의 특징이다.

통치자가 아무 견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행사하는 권력을 <벌거벗은 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벌거벗은 힘> 밑에서 일을 한다고—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나서는 단계가 전술한 <두 기능만의 수행>이 진행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생겨지는 것이 혼미임이 밝혀졌다. 혼미를 벗어나는 길은 강조하며 내세워진 일이 잘 안되는 징후가 있을 때에 일의 진행을 시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의 진행을 시작하는 일이란 상술한 세개의 권력인자들인 집권자, 국가, 그리고 사회집단들이 일에 의하여 견제를 받는 현상을 지칭한다.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에 이 일에 의한 권력 인자의 견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에 의한 권력의 견제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패를 없앴다는 것이다. 일에 의한 국가의 견제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것으로 무역증대를 위해서는 공산권 비적성 국가와도 교역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이다.

이상의 견제는 그러나 미미하다. 말이나 할 정도이지 업적이 없다. 이 미미한 견제보다는 훨씬 정부를 당황케 하는 것은 社會集團에 의한 견제같이 보인다. 작년 가을부터의 현상으로 볼 때에 활성화한 사회집단을 예시하면 大學(교수들은 아니고 학생들), 基督教團體, 東亞日報, 野黨, 民主回復國民會議 등과 같다. 이들 단체들의 주기능은 혼미상태의 지적에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혹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1. 강조된 두 기능은 국방과 경제인데 이 두 부문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견제자 역할을 하는 양상을 보여야 할 터인데 이런 점이 전연 안보인다. 오히려 이런 단체들이 더 정치권력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동아일보의 광고 무더기 해약과 기업주 심리를 발동하여 기사를 해임하는 동아일보 사태가 이를 말한다.

2. 기업주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勞組인데 노조가 제 구실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활성화된 사회단체의 경우 기존단체라기보다는 任意團體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신교의 목요기도회,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시민들, 民主回復國民會議, 이런 것들은 다 임의의 단체들이다.

이상에 보듯 오늘에 보는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이해관계의 계산능력이 없는 비경제인들의 움직임이다. 같은 비경제인 중에서도 기성세대나 감투를 쓰거나 공식기구가 아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에 혼미를 벗을 방도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세가지인데 하나는 두가지 기능만의 강조를 할 구실을 정부에 안 주도록 국민이 일을 하는 일이고, 둘은 일단 두가지 기능만의 강조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는 일이고, 셋은 정상기능화 작

업을 하는 일이다.

이 세 작업의 성공 예를 우리는 世界史에서 보고 있다. 독일보다도 더 선진국인 歐美國가에서 두 기능 수행을 민간인들이 나서서 한 예가 첫째의 경우이다. 이한빈 교수가 쓴 《작은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스위스를 소개한 책자에 의하면 스위스의 기초 작업을 한 세력은 마음이 깨끗하고 흔들리지 않은 손을 가진 淸教徒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점을 말해준다. 덴마크의 경우도 좋은 예가 된다. 덴마크는 바다가 육지보다 높은 나라이며 땅은 잔물의 침수를 받는 나라인데 이 나라 초창기에 누가 官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한 30년만 집권을 하게 해 달라. 그리하면 바다와 육지와 사이에 뚝을 쌓고 땅은 목축업을 하여 비옥하게 만들리라」고 말해 독재를 할 만도 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기초건설을 한 분으로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는 분은 軍人도 政治人도 아닌 일개 민간 목사인 구루더히씨이다.

두 기능간의 강조를 중지시킨 역사는 히틀러 치하의 獨逸 告白教會를 중심한 대항운동이다. 그리고 중지작업후의 정상 기능화 작업에 성공한 나라는 오늘의 서구 福祉國家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공산당 국가 같이 平等만이 강조되지도 않고 일부 자유진영 국가 같이 自由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공동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이다.

중지작업과 정상기능화 작업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작업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단계의 順理化 과정을 다음에 제시해 본다.

1. 人權유린의 중지
2. 官民 양측에서의 기구와 社會集團 발전
3. 官民 양측에 충원될 사람들의 동작화
4. 관민간의 대화

이 네 과정은 順理의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중 3항인 官民 양측에 충원될 사람들의 동작화의 예를 官의 공무원의 경우를 들 때에,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며 民主意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순리화는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치는 것이나 이중 두번째인 「관민 양측에서의 기구와 사회집단발전」 중 사회집단의 한 종류인 勞動組合만 활성화하면 다른 과정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건전하게 활동하게 되면 기업주의 금전지출이 감득되기 때문에 우선 정치비의 지출이 막혀짐으로 1항인 人權유린의 중지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 노동조합이라는 사회 집단이 官外에 설치됨으로 통치조직내의 기구분화도 자극하게 되는데 여(야)당은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며 행정부만해도 노동부나 사회발전담당 부총리니 하는 식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의뢰인(clientele)에 맞추어 조직이 分化될 것이다. 정치비가 덜 드는 나라란 공무원의 봉급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뜻한다. 노조가 있음으로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민주의식이 그만큼 담당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조가 있음으로 얻는 장점은 무질서한 노동과 같은 인권운동(1항의 내용인)을 끝장낼 수가 있는 점이다. 임의단체들의 요구보다는 공식기구들의 요구가 더 대화의 상대가 될 만한 말들이다.

금년의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즈음해 우리는 紙上에서 배상호 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노총간부들을 대통령이 맞이하는 카테일 광경을 본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좋은 사귀임에 첨가해 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를 트는 시작으로 다음 몇가지의 정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국가예산으로 같은 후진국인 인도에서 보듯 勞組幹部들

의 교육을 시킨다. 예를 들어 財務諸表를 분석할 줄 아는 노조간부는 그렇지 못한 간부들보다 더 건설적일 것이다.

2. 유수기업체와 기독교실업인의 기업체 등에 노조를 결성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 같은 지성인들의 단체에서 노조가 申告證을 교부 못 받아 정식으로 노조를 결성 못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다.

3.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非常大權을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채 勞動 三權을 완전히 노조가 행사하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로 나왔고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국가 보위법은 폐지한다. 전전한 노사관계를 유지케 하는 것이 전술한 바 국가의 정상 기능화를 도우는 일이며 또한 공산당과의 대결 능력도 기른다는 점에서 공산당이 침투할 여지를 사회저변에 안주기 때문에, 국가보위의 정신에 맞는 일이다.

우리는 왜 이런 길을 가야만 하나, 이는 우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야할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 길은 사람 중 가장 작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길이다. 이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람에 따라 노동자라고 불러도 좋고 民衆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 길을 우리가 다 가는 날, 그 때의 세상은 노동자와 민중에게까지 기쁜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일 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직업관도 그 때에는 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언젠가 독일 국방장관과 같이 자기 직업을 벼돌공이라 해도 몇몇한 사회가 될 것이다. 英雄觀도 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사람에게 남 모르게 봉사한 사람이 영웅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남녀평등을 하자는 여성들이 과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성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는 버려질 것이기 때

문이다. 그 때에는 젊은이들이 편하게 쉽게 살기보다는 괴롭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 때에는 남성들이 가정에 충실하며, 술마시기 보다는 사회집단에 가서 일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 날에는 사회도 달라질 것이다. 좀더 자율적이며 다원화된 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마을들이 자치제도 하에 발달하며 천연자원이 잘 보존되며 경제자원 낭비를 밀바탕으로 한 경제가 아닐 것이다. 안보와 애국은 국민들의 참된 동기와 애국심을 뒷받침으로 해서 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그 때와 그 날에는 가장 작은 자가 사람답게 살게 되는데 가장 작은 자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곧 특하면 혼미 속에 있기 마련인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創造行爲인 것이다.

〈基督教思想 1975년 4월호〉

① 지성이 언제나 권력에 의하여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지성이 학대를 받는다 해도 해당 시대의 이른바 지성인이라는 이가 다 학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지성과 권력이 잘 어울릴 때 지성이 하는 일이 있다. 전통의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새 고급문화를 창조하며 보급하는 일을 한다. 한 때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 등이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지성이 온 세계에 대하여, 19, 20세기의 프랑스 예술과 문학이 역시 온 세계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지성은 일개국가 혹은 수개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단위에 적용할 모형을 제공해 왔다. 그런가 하면 학교 교회 신문 등을 통하여 서민문화의 창달에 기여도 한다. 지성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또 지성이 권력 속에 들어가 정치담당 역할도 한다.

이러한 어울림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어울림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② 그렇다면 언제 이 어울림이 불가능해 지느냐 혹은 어울렸다 해도 그 어울림이 무의미해 지느냐.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역사변화의 요청에 수응해 오던 권력이 권력증대의 경향성에 굴복해(歷史變化의 요청에가 아니라) 反歷史的 行態를 취할 때 지성인이 권력에 의하여 학대를 받는다.

여기에 몇가지의 설명이 불가피해진다. 우선은 역사변화의 요청이란 무엇이나이다. 왕과 그 들레의 귀족만이 권리행사를 해오던 역사참여의 폭을 넓혀 중산층(자유라는 시대정신의 구체화 때문에)이 권리를 향유하는 역사, 부익부 빈익빈 제국주의 등의 자유정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구체화 하는 역사와 같은 변화가 참가하는 국민의 요청에 의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역사변화의 요청에 수응한 권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권력의 일차적 임무로 삼는다. 둘째로 국민의 동의에 입각한 정부만을 강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앞의 두 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 해당국민은 그 정부의 改廢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넷째로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경제분배를 한다.

순리적인 이 〈요청과 수응〉관계에서의 지성인의 역할은 한 마디로 앞서 열거한 것인 사회변동예의 영향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변화의 요청을 하는 이가 지성인만은 아니다. 해당사회의 제 구성부분이 요청을 한다. 이 점을 보여준 글은 《現存》 78년 6월호에 실은 白樂晴씨의 글「大衆과 歷史意識」(특히 17, 18페이지)이다. 이 글은 정치, 역사, 문화 등, 사회의 제 구성부분의 움직임을 제시한다.

역사변화의 요청이 있으면 권력이 이를 수응만 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사실의 역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反歷史 혹은 反動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 반동시대에 지성이 학대를 받는 것이다. 반역사 혹은 반동권력의 전형적인 예로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스탈린주의(민중의 참여와 결정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자유주의 체제에서 나찌파쇼와 미국의 닉슨체제(뉴딜 패여일 정책 등의 順理歷史現象에 역행한), 후진국에서 통치를 극

좌정치단체가 하는 나라와 극우정치단체가 하는 나라 등을 들 수가 있다.

반역사적 권력이 그러나 그냥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실을 내세워서 통치를 한다. 왜냐하면 피통치자인 국민은 이미 역사변화의 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요청에 따라 권력이 변화한 것을 경험한 만만치 않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 집권자의 구실과 내세운을 韓完相씨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위에서 예시한 5개의 반역사적 권력이 내세우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지성인이 학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1. 통치자 개인이 하나의 카리스마로서 부각이 된다. 이는 근세사의 기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행복추구를 부각하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다.

2. 국가주의가 등장한다. 이는 물론 통치자 개인을 내세우는 구실이다. 국가에의 충성을 강요함으로써 통치자 개인에의 충성을 받는 기법이다.

3. 관주도로 하는 <일>을 내세운다. GNP 근대화 국력신장 등이 일의 내용이다. 국민 각 개인이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증대가 목표가 아닌 것이 이 <일>의 특색이다.

4. 기술교육이 강조된다. 全人敎育이 아닌 것이 특색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모든 나라에서 지성들이 다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지적하며 나서는 것은 아니다. 《文學과 知性》 71년 겨울호에 실은 金麗壽씨의 글 「知성과 權力」에서 보듯 독일지성들은 상아탑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 상황을 설명한다. 「지성의 內性化는 홀름트에 의해 제도적으로 敎義化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내적인 자유만을 고집하고 내성화된 지성은 외적인 위

협 특히 권력의 도전 앞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 그 자체도 기존 질서에 대한 초월적이고 창의적인 비판의 기능보다는 국가의 수요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의 분배 역할을 하는 보수적인 기구로서의 기능화와 어용화의 운명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사회질서의 현실이 지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과 성실성과 자존심의 포기를 강요할 때 이민도 안가거나 못가고 그렇다고 레지스탕스도 못하는가 하면 친체제로 나설수도 없어 다만 현실로부터의 후퇴라는 소극적인 정치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때에 지성인은 어용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부조리한 상황을 거절하는 지성이 인류에게는 고맙게도 있어 왔다. 이 지성은 어차피 실현되지 아니하는 지성을 상아탑 안에서 닭은이가 아니다. 이들은 부조리한 현장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새 이론을 만들어 내는 오랜 참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 이론에서 실천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실천에서 이론으로의 길을 가는 말하자면 프락시스(praxis)의 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 1단계 : 지성인의 추방현상이 생긴다. 추방이란 지적활동의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처, 지적활동의 행정기구(도서관, 연구시설 같은), 지적활동의 요청, 지적활동의 플랫폼으로서의 전통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이 추방은 아픔을 추방된 지성인에게 준다. 그리고 이 아픔이 새 학문의 출발점이다. 사회문제의 출발을 관련자의 감정이 나 있느냐 없느냐에서 보는 입장의 책 예를들어 미네소타 대학교 사회학 교수 어빙 툴먼(Irving Tallman)이 1976년에 낸 책 《Passion, Action, and Politics》도 아픔에서 출발을 찾는 책이다.

이 아픔은 자기만의 아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같은 아픔을 본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아픔이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해결안은 이미 경험했던 좋은 경험 즉〈권력이 역사 변화의 요청에 수응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자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이다. 무엇 무엇의 회복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말의 지성 중 강화조약(1876) 체결 때 목숨을 걸고 상소한 崔益鉉(188~1906), 《韓國痛史》《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쓴 1910년대 역사가자 朴殷植, 《朝鮮上古史》《朝鮮史研究等》《朝鮮革命宣言》등을 쓴 1920년대 역사가자 申采浩, 《五千年間朝鮮民族의 열》을 쓴 鄭寅普, 《朝鮮上古史鑑》을 쓴 安在鴻 등이 ~~과거지향적~~ 해결안을 제시한 지성들이다. 예를 조선에서 든다면 宗教的一體統的 大러시아주의로 돌아가라는 〈술제니친〉의 해결안도 성격상 이 부류에 속한다.

제 2 단계 : 그러다 보면 체제 내에서 이견이 발생케 된다. 이는 잘못이 체제 내에 있는 자기네 끼리에도 명백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우선 체제가 하겠다고 내세운 일이 내세운대로 안되는 것을 보아서 이견이 발생한다. 잘 산다는 것이 GNP 성장과 무관하다는 경험, 우방의 지원이 없는 국방의 허위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경험은 비인간화의 경험,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경험이 있게 되면 체제내 이견이 생기게 된다.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지닌 지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 거룩한 곳이 셋이 있지 않을까. 하나는 머리로 들은 가슴이요 셋은 하체이다. 사람이 도덕적 판단의 행사를 안해 옳게 살려고는 안하고 목숨을 이어줄 경제의 분배가 안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제 2 단계 지성은 〈경험의 사실〉을 존중하는 특성을 지닌다. 새 경험이 묵은 경험을 가르치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제 2 단계 지성은 〈구체적인 個人性의 자발적인 표현〉을 존중하는 romanticism의 표현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의 해결책은 체제를 초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체제내의 이견이니까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이 단계의 해결

책은 現在志向의이다. 내세운 것대로라도 하라는 식의 발상법이다. 한말의 경우 무슨 지금까지 해오던 왕정을 뒤엎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것을 고쳐보자는 金玉均式 발상법이 이에 해당하고 본다. 김옥균은 형조참의를 아버지로서 또 이조판서를 외척으로 20세 전에 이미 상류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되어 있었던 체제내 인사였다. 소련의 경우 민중의 결정과 참여를 동반한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그리고 령코〉의 입장이 이 체통이다.

제 3 단계 : 행동적이며 미래 지향적 지성이 발생한다. 사회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하로프〉가 이에 속한다. 이 단계의 지성은 apocalyptic, millenarian tradition을 갖는 것이 특색이다. 동학이 이에 속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보는 구약의 예언자, 신약의 〈하나님 나라〉사상, 그 후의 이단자 제보가 다 이에 속한다. 이 단계의 지성은 낭만주의의 후예이어서 공부를 안한 보통 사람들의 창조성과 우수한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신념을 갖는 〈popularism〉의 경향을 띠는 것도 사실이다. 민중이라는 어휘를 이런 이들은 많이 사용한다. 기성질서를 부정하는 청년문화는 이 단계의 지성에 속한다.

제 4 단계 : 건설적이며 성숙한 지성이 출현한다. 이 단계의 지성이 성숙한 이유는 앞의 세 단계의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구체적인 요청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이기도 하다. 한말에 본 상술한 유행인 삼종류의 지성 최익현·김옥균·전봉준이 다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이나 위약 때문에 꺾인다. 이런 분들의 꺾임이 후세인들의 좌절의 계기와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는 외국에 망명을 해 일본과의 전쟁준비를 하거나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일부는 국내에서 교회 학교 언론기관 등등을 세운다. 이 제 4 단계의 지성은 그러나 국내에서의 운동상황을 위한 지성이다. 이기지 않는 전쟁을 벌

리면 아군만 피해를 본다는 가르침이 손자병법의 한 요지이다. 전쟁을 하는 것이 운동에 오히려 해가될 때 무엇을 하는가?

이런 실용적 이유에서 생겨난 해결안이 자유민주주의 문화에서 보는 점진주의이다. 예를들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의 지성에서 보는 점진주의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소의 개혁으로 만족을 하는 지적태도를 일컫는다. 이제 4 단계의 시도에서 형성된 개혁내용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개혁된 것은 좀체로 없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남아 거의 전통화 한다.

이 단계에서 지성인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해당사회에 그전과는 다른 형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고, 둘은 새 인물들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일이고, 셋은 이 사회집단들이 정책을 발전시켜 해당 사회의 통치집단에게 형성된 정책의 실현을 요청하는 일이다. 이 셋을 한마디로 말해 사회집단의 형성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인물만 있어도 안되고 새 인물이 사회집단을 형성할 정도여야 하고 정책은 단순히 인물에게서 나와서는 안되고 사회집단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집단은 통치 집단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넓은 의미의 권력전제 집단인 점에서 무산자의 집단인 공산당의 독재를 공언하는 공산주의 해결안과는 차이가 있다.

새 인물, 해당 사회의 지성인과 그 지성인이 양성해 내는 표준인물의 성격이 구인물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新舊對比를 다음에 해 본다. <부당하게 높고 있는 이 편에서/밀의 사람을 놀리고/그 놀림의 대가로 돈을 받아 비대해지고/그 돈으로는 부패를 하던 사람>이 <낮고 없는 자 편에서/비폭력의 길을 가며/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며/개인윤리면에서도 나무랄데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부당하게 높고 있는 이>가 나쁜 것

이지 <높고 있는 이>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높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인류의 바래임인지도 모른다. 부당하게 낮고 없는 이의 편만을 드는 것이 아님도 유의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낮고 없는 이 편에 섰다는 죄(?)하나 때문에 비폭력 고난 個人善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 제 4 단계의 지성도 역시 포악한 체제에 의하여 꺾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주더 파격한 세례자 요한이 옥사했지만 그 보라도 덜 파격한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노동자 독재를 말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주의를 말한 것인데 희생당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노동운동사이기도 하다. 제 4 단계의 지성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현실 속에 제 3 단계 보다는 더 보낼 것을 보태 놓고서 희생을 당한다. 각료회의를 밤늦게까지 하고 자기 아파트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잔다던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골다메이어>라든가 <다우링>이 10번지를 나온 후 전세집도 못 얻어사는 영국 수상들 얘기가 이런 인물들의 표본을 보여준다.

이런 지성인 인물들의 영향하에 자유구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단체인 대학, 교회, 언론기관, 야당 등이 그리고 평등실!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단체인 노동조합과 농민단체들이 생겨난다. 脫反歷史時代의 지성에게 있어서는 자유구현 단계에서의 다른 종류의 사회집단,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설립 같은 것을 의미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단체는 윤리적 판단의 뒷받침을 덜 필요로 하는 단체일 뿐 아니라 <반역사시대>에서의 주식회사는 반역사적 작태의 동조자 역할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역사시대의 사회단체는 반역사시대가 요청하는 새 인물의 확대형으로서의 단체이다. 이런 유의미 단체(有意味團體)들은 부당하게 낮고 없는 자 편에서/비폭력의 길을 가며/그래서 해당 단체로서는 손해를 보지만(점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머문다는 점에서)/해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갖추어지는 현상을 떠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체만이 공산체제내와 자유주의 체제내의 강경체제의 출현을 방지할 수가 있다.

제5단계: 지성인의 정상활동이 생긴다. 이 글 서론에서 쓴 권력과 지성과의 어울림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제1단계에서 제4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지성은 제5단계를 경험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제4단계에 걸친 경험이 없는 제5단계의 지성인은 지성인이 아니고 이는 기술자, 지성字를 붙인다면 지성기술자, 따라서 체제유지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④ 78년 10월 30일자 NEWS WEEK 지는 새 교황을 낸 폴란드를 소개하는 조지 윌의 글을 내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폴란드는 공식명칭으로서의 국가이름이 어떤든 간에 이런 국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국가가 따로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별도의 나라를 형성시키는 것은 <문화에 의하여 결속이 된 국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에 지성인은 해당사회를 형성시키는 핵이다.

사실상 지성인의 특성은 끈질긴 참음에 있다고 본다. 이 글이 제시하는 참음이란 추방된 아픔을 참는 참음, 체제 내에서 이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참음, 체제 내에서 나온 이견과 같은 말을 하면서 참는 참음,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해보는 예를 들어 낮은 이들을 존경하며 오히려 낮은 이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참음, 그리고 건설적이며 성숙한 知性을 형성해 인물과 정책과 사회집단을 만들어 내 나가는 참음 이런 참음이다. 나는 이런 의미의 참음의 능력이 우리 겨레에게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적능력은 지능과 기능의 발달에서 보는 말하자면 표피적 능력과 이 글이 강조하는 권력과 지성의 갈등시에 참아내는 능력인 심층적 능력으로 양분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피적 능력은 권력과 지성이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기술제공

측면이기도 하다. 현대에서는 이 우리의 표피적 능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근대사와 이조시대에서는 심층적 능력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지적해 보자.

표피적 지적 능력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게 하는 자료로 우리의 교육열, 해방 후 우리가 교육한 인재로 경제건설을 한 일, UN의 통제가 한국을 문맹율이 낮은 국가로 표시하는 일, 그간 쪽 좋은 성적을 내 오던 우리의 기능공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계기능올림픽에서 패권을 차지한 일——이 경우 2등 3등을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같은 후진국이 한 것이 아닌 점이 인상적이다——등을 들어야 한다.

근대사에서 예를들어 3.1운동 무렵의 우리의 지성적 반응은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1897년 즉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 12년이 지난 후 작성된 한 선교보고서¹⁾는 그 당시의 주요 사회집단인 교회가 뛰어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가진 한 가지 가장 흥미있는 특색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애국심이다. 어느 날 일요일 아침 좀 늦어진 연안선 배가 북한 어떤 곳에 우리를 내려 놓았다. 李氏가 강을 따라 서있는 여러 마을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거기에는 대나무 가지 위에 조그마한 한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이 국기들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나타내는 것 또는 교회 위에서 나부끼고 있는 것이었다. 일요일에 자기 집이나 교회에 국기를 올리는 것은 선교사의 지도없이 크리스천들 사이에 일어난 관습이다>

3.1운동에 기독교인이 대거 참여한 것은 전술한 유학전통의 사회적 공헌도 못지 않은 공헌이며 새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종교인 기독교의 습知性을 보여준다.

1) Robert E. Speer,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 p. 32

이조조의 지성주의 요소를 나는 세 가지로 본다. 하나는 정치체제가 내세우는 정책목표가 부국강병이 아닌 <仁>이라는 점이고, 둘은 정책 목표를 시행하는 방법이 武가 아니라 <文>이라는 점이고, 셋은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국민이 비물질주의의 고급문화를 가진 점이다. 이조조가 관 주도하에 굉장한 일이나 공사를 늘 하며 병력유지도 예를 들어 만주족 못지 않게 유지했더라면 오히려 이조조를 이어가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의 시행방법이 무가 아니라 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학제도이다. 徐基源씨의 글 「유교적 지성의 현실인식」²⁾은 이조조의 문인등용제에 대하여 약간의 순기능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徐氏는

〈이조봉건체제〉가 아는 사람을 곧 지배층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반체제적 비판을 담당할 소리를 없애버린 것은 통치의 효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조가 것처럼 빈번한 내외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5백년이나 명맥을 유지한 것은 이런 효율성의 덕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같은 효율성이 오늘날에도 정치참여(현실 참여가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지식인을 유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심지어는 영의정까지도 등용해 올린 공무원제도는 중국 이외에 그 당시 세계역사상 볼 수 없었던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문인이 아니다. 자기가문이 가보로 두는 일본도(日本刀)로 자기의 선조가 일화에 수십명을 죽였느니를 자랑으로 삼는 형편과 견주어 볼 때 우리는 확실히 고급문화권에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태극출판사에서 편 《韓國人의 思想》중 함석헌 선생이 쓴 글의 취지인 붓으로 칼을 이기는 문화가 책

임 있는 지성인의 관심사이어야 한다.

통치체제가 프로그램은 仁, 그리고 시행방법은 文 정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체제의 밑뿌리가 되는 민중 자체가 그만큼 고급이었기 때문이다. 70년대 미국 청년들이 읽은 베스트셀러는 <헬만 헛세>의 《데미안》이라고 한다. 이 소설이 지닌 비물질주의가 청년들의 마음을 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야(?) 그렇다면 우리는 청빈(淸貧)을 사랑하는 비물질주의의 문화 속에 산지가 (즉 <허피>인지) 적어도 500년은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흰옷, 김치, 된장, 간장, 초가 삼간 등이 보여주는 우리의 소박한 생활양식과 청빈사상은 우리가 평화를 즐기는 사람들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평화란 곧 일개인의 포악을 그 방법으로 하는 반역사체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 점에서 그양의 포악이 아니다. 가장 심한 포악을 겪은 이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포악을 길게 참으며 드디어는 제일 평화스러워지는 복도 받을 것이기에...

〈씨울의 소리 1978년 12월〉

2) 文藝文庫, 《韓國의 知性》중

인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을 마친 예수의 행동을 통하여 이해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이다. 출애굽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둘을 빼놓은 성서는 이미 성서가 아니라는 설교를 빈번히 하시는 목사가 서 남동 교수이다. 하비 콕스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책에는 구약의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가 구약의 첫번째 책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십자가를 카톨릭교인들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십자가를 개신교 교회당은 상징으로 사용한다.

출애굽과 십자가의 두 사건은 공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한 행동양식이 무엇이었는가의 양면을 보여 준다. 이 두 사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현대어의 「인권 문제」에 해당하며 문제의 해결은 역시 현대어의 「평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인권문제의 성격

우선 왜 두 사건은 인권 문제의 성격을 지니는가? 인권 문제를 주요 사회현상으로 설명하는 견지에서 볼 때에 인권 문제의 정의를 제시하는 책이 1976년에 출간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톨먼 교수의 책 《Passion, Action, and Politics》라고 생각한다. 톨먼에 의하면 체제와의 갈등, 정치적 행동, 그리고 넓은 관련자의 폭을 보여주는 사회현상만을 사회문제라고 한다. 톨먼의 〈사회문제 3 요소〉를 다음에 부연한다.

1. 문제의 認知에서 행동에 이르는 영역을 갖는 것이 갈등의 개념인데 갈등을 초래하는 인지는 우선 문제의 원칙이 사회구조 내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나아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사태판단이 생겨야 하고, 그렇다고 의분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사태를 고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인지하는 것이 인지의 단계이다. 따라서 이 인지의 과정에서 대안이 없으면 불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알 것을 안 후에 나쁜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 곧 행동이다. 개선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는 악의 제거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악의 존속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간의 부딪침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성격을 떠는 행동은 따라서 관련 인원이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을 상정한다. 국가정책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사회 부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이어야 하기도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관련된 양측은 각각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며 양측의 호소는 각각 자기의 입장을 도의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2. 입법과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치 권력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이 현상이다. 이에 비하여 자유체제에서 사회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다만 미해결의 문제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에만 안정에 위협을 준다. 형편이 이렇게 때문에 반대자를 체제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70년대 미국에서 비록 당에의 충성

보다는 흑인 해방에 더 충성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지도자들을 민주당이 흡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체제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역시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빈민문제로 인한 대규모 시위나 집회는 이들의 파업 등이 있었던 것이 이 예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도로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닉슨의 탄핵이 가능하리라는 체제내 해결의 전망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톨먼 교수의 견해이다.

3. 관련 인원수의 수가 클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지닌 감정의 밀도가 높아야 사회문제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증가라든지 교통사고의 증가 같은 문제보다 범죄, 빈곤, 흑백문제 등이 미국에서 더 사회문제시되는 것은 이 감정의 밀도 때문이다. 높은 감정의 밀도는 정열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감정을 뜻하며 이 경지에서는 심지어는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게 된다. 단순한 청원운동보다는 합법적 시위, 합법적 시위보다는 기동경찰이 막는 데모가 더 감정의 밀도가 높은 행동이며, 감정의 밀도가 높은 행동일수록 관련 인원수의 폭도 넓어진다.

구약의 출애굽사건이나 예수의 처형사건은 공히 이상의 세 사회문제 요건을 충족한다. 출애굽사건은 우선 갈등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문제발생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쥐고 있는 바로왕에게 있으며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사를 당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인지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보러 가게 해 달라」는——나라의 한 지방을 따로 달라든지 바로왕이 물러가라는 등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 아닌——대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경우 그의 동족인을 죽인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그로 하여금 애굽인을 죽이게끔까지 만드는 감정의 고조를 볼 수가 있다. 모세의 분노는 곧 모세의 행동을 표현하는 다른 말에 불과하다. 공주의 양자로

성장을 한 모세는 체제내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의 불가능을 알고 체제외적 시도로 옮겨간다. 이렇게 그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행태이다. 관련된 인원수의 폭이 넓은 것이 출애굽사건이다. 애굽내에 체류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이동이 출애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정도라고 하니 관련자들의 〈감정의 고밀도〉 현상을 가정할 수가 있다.

예수의 사형을 선고케 한 고발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성전을 헐겠다고 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다 그 당시의 정치와 종교를 쥐고 있는 권력인 정권과 교권에의 도전은 말해 준다. 예수의 정권과 교권에 대한 도전은 도의적 판단에만 기초를 두고 있다.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고도 하시며 교회 존립의 기본제도가 되는 안식일 법에 관하여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신다. 복음, 기쁜 소식이란 지금 말로는 대안이라는 말이다. 예수의 생활과 행동 자체가 곧 대안 자체라고 예수는 말한 바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이 예이다.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진 책 마가복음은 병을 고쳐 준 예수의 기적 얘기로 가득 차 있다. 기적을 행하는 이 행함이 복바치는 연민의 정에서 행하여짐을 알 수 있다. 병을 고쳐 주고는 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이다. 이렇게 예수의 행동의 기초는 불쌍한 사람과 같이 있는 뜨거운 감정이다.

체제내적 시도와 체제외적 시도를 둘 다 하신 이가 예수이다. 체제의 사람인 세례자 요한과는 다른 면모가 예수에게 있다. 교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그분의 전도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갈릴라이며 그는 곧잘 이방인, 죄인, 세리 등과 같은 비천한 무리

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비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준 후 집에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권익신장을 도모하면서 체제내자인 기독교인에게는 서슴지 않고 기독교의 포기를 선언 하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물려서 피하신 예수의 기사를 복음서는 보여 준다.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체제가 흡인해 들어 기 어려운 다량의 사회압력이 조성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게 되면 그의 종말을 그만큼 단축케 한다는 계산을 아마 예수는 하셨으리라. 좀더 알려진 데 가서 얘기하라는 형제들의 권유에 대하여 너희들은 상관없으나 자신은 세상이 나쁘다는 말을 해 저쪽이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하신 적도 있다. 예수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도 호산나로 환영하는 무리를 보여 준다. 예수를 쫓는 무리가 많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죽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평화적 행동의 요소

많은 관련자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갈등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없다. 그러나 갈등이 폭력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샤롬, 즉 평화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뜻하며 폭력의 행사없이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창세기 4장은 아우를 죽인 카인을 하나님이 아무도 못 죽이게 하는 기사를 담고 있는데 이 한 토막 그림이 샤롬의 예이다. 죽여야 할 자와 죽이는 마음까지도 사양치 않을 자 사이의 평화적인 갈등관리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출애굽사건에서 평화적 갈등관리의 면모를 다음에 간추려 본다.

1. 실현 가능한 일 한 가지의 요구를 한다. 「내 백성을 광야에 나가 예배하게 하라」가 특정화된 요구이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 항일전쟁을 할 때에 국공합작을 한 것은 항일이라는 특정화된 일에만 이념을 불구하고 집착한 예이다. 여기에서 요구란 현대의 개념으로 사회 압력의 조성을 뜻한다. 사회 압력을 평화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개를 하는 현실적 존재로 본다는 말이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회개를 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인데 이 야곱의 회개는 회개를 안 하려해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회개이다. 강을 건너서 고향에 가면 자기가 잘못된 형이 그곳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안 후의 회개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회개를 가지 고도 의미있는 변화의 기점으로 보시고 이름을 고쳐까지 준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는 현실적 이상주의자다. 예수의 비유태자도 그렇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 이유는孝心에서도, 도시의 공해를 피하자는 마음에서도 아니다. 돼지가 먹던 찌꺼기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즉 배가 고파서 돌아온 회개이다.

2. 압력을 넣되 미리 어떠한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리고 있다. 다만 저쪽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후의 압력 조성은 예고할 필요 없다. 둘째 비제 일곱째 등의 재앙시 바로왕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예고없는 재앙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둘째 재앙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왕 앞에 가서 모세가 예고를 하는 절차가 없는 재앙이 뒤따른다.

따지고 보면 「……케 되면……케 된다」가 예고의 형식이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예고란 예언이며 사회압력 조성자는 예언자이다.

3.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는 자유를 줄 정도로 끝까지 상대방을 살려 주고 여유를 준다. 출애굽 9장 15절

16절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 버릴 수도 있지만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둔다.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떨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째 재앙시에도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어도 강 주변에 우물을 파면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심지어는 맨 나중의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만을 죽였지 다른 자식들까지를 죽이지 않는다. 기득권자로 하여금 있는 자로 남아 있게는 하되 다만 자기의 것을 양보케 한 사회는 전전한 사회이다.

계급정당이 아니라 파비안회(Fabian Society)가 주도한 영국의 탈보수주의 정치운동은 기득권자의 양보 예이다. 미국의 70년대의 인권운동의 주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 사람들인 점도 전전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4. 사회 압력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압력을 점차로 늘려 나가고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쪽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괴롭히던 것이——예, 강물이 피로 변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물을 못 마시게 되는——나중에는 저쪽만을 괴롭히는 것으로 변화를 한다. 막연한 피해, 가축의 병사, 피부병, 식물의 죽음, 큰아들의 죽음 등은 사회압력의 漸增을 보여 준다.

5. 죽인다는 말을 안 한다. 아홉번 재앙 때 왕의 말이 다름에는 네가 나타나기만 해도 죽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죽게 되는 한계에서 저쪽의 장자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 생긴다. 이 마지막 압력은 예고없이 행해지며 저쪽의 마음이 굳어질 자유를 안주고 행하여진다.

모세의 운동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예수의 운동은 민중 의식과 민중 조직을 형성시키기 위한 비특

정 목적을 지닌 운동이다. 이 두 행동 중 예수가 제시하는 행동이 행동의 기본형이라 본다. 기본 행동을 익혀 온 운동원단이 때가 왔을 때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군인은 항상 제식훈련을 받고 있어야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예수의 행동원리는 ① 비참한 현상에 대한 태도, ② 전도에 대한 태도, ③ 조직에 대한 태도, 끝으로 ④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로 4분화해 검토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4분류는 체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발전 순위이다. 우리의 근세사에서 비참한 세상, 즉 除暴救民을 해야 할 세상→동학의 人乃天사상→執綱所조직→정부에의 압력등으로 발전한 것이 동학혁명의 성숙한 발전과정이다. 네 요소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다음에 간추린다.

1. 병자, 나그네된 자, 가난한 자, 옥 중에 있는 자 등 자신의 처지에 있지 아니한 자 중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이다. 사람은 보통 병자, 나그네, 굶는 이, 죄수가 아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사람은 세상을 본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경향을 벗고 비참한 밖의 세상에 있는 이——예수는 이런 이들을 지극히 작은 이라고 하신다——를 위해서 최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의 현장에 관한 행동 명령이다.

2. 비참한 세상임을 밝히고 비참함을 면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본동작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 중들이서 같이 전도하러 가라는 데 있다. 이 말씀이 함축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한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라는 것이지 무슨 광장에 군중집회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다. 둘은 한 사람에게나 세상이 나쁘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는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말은 집회 방해를 받아 군중집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다. 셋은 저쪽은 한 사람인데 이쪽이 둘이면 이쪽의 힘이 더 세다. 전도하러 간 집에서 내쫓겨도 둘이서 당하면 서로가 위로를 할 수

가 있고 어려운 말을 전할 때도 저쪽이 한 입을 갖고 의문을 제기할 때에도 이쪽은 두 입을 가졌으니까 더 말을 해낼 수가 있다.

3. 조직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거기에 제시겠다는 데 있다. 2,3인이 모여 같이 기도를 할 정도의 끈끈한 밀착관계 이외에 다른 조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각박해서이다. 공산사회에서는 길에 2,3인이 서 있어도 의심을 받는다. 곳곳에 감시 TV가 장치된 나라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다.

4. 정치체제에 대한 행동은 예수의 재판석에서의 대답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에 함축되어 있다. 왕은 아무에게도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재판정에서 침묵을 지키시며 다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만 응하신다. 오늘의 세상에서 나라의 왕을 주권자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오늘의 왕은 시민이다. 시민이 시민의 권리로서 행한 불복종이기 때문에 조서관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톨스토이→잔디→소로우→마틴 루터 킹을 잇는 시민 불복종운동의 행동원리이다. 이 경우 불복종자는 그러나 불복종의 가격을 지불한다. 불복종의 가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시는 이가 예수이다. 예수는 기껏해 네 몸을 파괴할 뿐 네 영혼을 어찌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 말라고 하신다. 예수는 법정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신다.

肉化—세속 사회에서의 실현—문제

출애굽의 경우와 같이 폭력행사의 결의를 저쪽이 먼저 하며, 예수의 경우와 같이 예수가 희생을 당하는 비폭력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연다. 갑자기 새 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신 역사이다. 출애굽의 경우 갑자기 생겨난 출애굽사건을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

에 둘러메고 떠났다」고 표현을 한다. 전술한 예수의 행동은 다 말세를 사는 이의 행동이다. 성서는 새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행동이 갖춰진 상태는 갑자기 찾아온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상태이다.

세속제도 속에 전술한 두 행동양식이 구체화해 있다는 말은 따라서 세속제도가 말세를 면할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는 뜻도 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매일 새 역사를 맞이할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된다. 기본 동작에 해당하는 예수의 행동을 구체화한 것이 근대 헌법이며 전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인 출애굽사건을 구체화한 뜻이 노동삼권이다. 역사적으로 헌법 다음에 노동법이 생겨진 것은 기본 동작을 익힌후의 臨戰이라는 순서와 같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예수의 행동 4요소에 맞추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에 대한 행동, 즉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육화는 적극적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적극적 권리는 소극적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소극적 권리 보장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다. 국민 각자는 적절액의 수입, 교육, 의료 혜택, 주택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의식화 확대의 길을 여는 기본권인 정부에 대한 권리는 소극적 권리 중 사적 권리(private rights)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생명, 육체적 자유, 종교적 신앙과 종교적 관행, 예술적 표현, 연구, 교육, 사생활 등의 자유가 사적 권리의 예시이며 이와 같은 자유의 기초하에서 의식화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3. 조직론의 고전 중 하나인 Barnard의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에 의하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조직 비결은 출석과 헌금의 강조라고 한다. 조직에 관련된 기본권으로 출석의 면을 밝힌 것은 역시 소극적 권리 중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며, 헌금의 면을 밝힌 것은 경제적 권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투표, 정치적 직책에의 출마, 집회, 조직 등의 자유는 정치적 권리의 내용이다. 각자가 자유스럽게 가질 수 있는 재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현금제도를 상정할 수 없다. 재산의 소유와 사용, 직업, 구입과 판매, 계약 등의 자유가 경제적 권리의 내용이다.

4. 정부에 대한 행동을 보장한 중요한 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작위 혹은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청원권(정치적 권리의 하나인)과 정부와 국민간에 지켜져야 할 제반 절차에 관련되는 권리이다.

노동 삼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형성해 기업주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보되 파업이라는 압력을 허용해 합의를 보든지, 합의된 것을 이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자 개개인이 무질서하게 기업주를 괴롭히는 것보다 평화적이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평화적인 조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자가 기껏 선택할 수 있는 압력은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파업이지 기물과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구내의 질서를 파괴케 해 공장의 수위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쟁의는 아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로 다스려진다. 그리고 기업주에게도 노동자들에게 대항하는 무기가 주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불법을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을 해, 이를테면 공장 폐쇄를 단행할 수도 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을 다만 평화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인도의 83, 이스라엘의 75를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치적 자유 지표가 높은 나라들은 다 평화적 갈등해소에 성공한 나라들이며, 공산주의 방식의 해결을 모면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인도의 힌두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기타국의 기독교 등과 같이 종교가 세속제도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基督教思想 1979년 7월〉

여성의 역할과 人材

여성의 두 행태

가정이라는 기구는 인류생활과 더불어 존재한 제도이다. 이 인류최고의 기구인 가정에서 아버지 아닌 어머니는 늘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맡아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어머니를 가정에서 길들게 한 해묵은 관행이 곧 오늘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규정지어 준다는 것이 우선 이 글의 첫 전제이다.

여성인 어머니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떠한 행태에 익숙해온 것일까.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는 자기중심적 행태이며 다른 하나는 利他적 행태라고 생각을 한다. 언젠가 기독교 모임에서 나는 여자의 장로제를 반대한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마다 여신도의 수가 남신도의 수보다 더 많은데 이 많은 여신도들이 신앙을 갖되 이 타심에서라기 보다는 자기집 잘되게 해달라는 자기중심에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최고직인 장로까지 시켜놓으면 교회가 더 보수화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성서에 보면 여성이 처녀, 신부 그리고 처 등 세 카테고리 분류가 되는데 이 세종류의 여성 중 제일치는 사람은 갖결혼한 신부이지 아직 신앙을 갖기 이전인 처녀도 아니며 이미 기독교를 가진 처도 아닌 것이다. 육신을 전제치 못

해가 엇갈려 최소한의 긴장완화마저도 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를 빙자해서 북한은 남한에서의 유엔군 철수라든가 인민회의와 우리 국회와 접촉을 하자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인도주의에 관한 것을 다루듯이 이번 남북회담에서도 긴장완화만을 다루었어야 되리라 본다.

즉 현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보아 긴장완화와 교류정도가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국토통일 원칙도 남북평화원칙이라 한것이 오히려 통일에 더 접근하는 인상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된다.

허나 우리의 국내사정이 호전되고 안되고 간에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아직 우리 전부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방법이란 북한을 국제사회에 빨리 끌어내고 남북간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내적으로는 민주개혁을 단행시켜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조속히 취해지지 않을때 우리는 民主主義가 아닌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月刊 다리, 1972년 9월호〉

평화사회를 위한 법

국민과 정부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과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구별해 보라는 것이 이 글이다. 법은 각국의 정치과정의 양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정치과정의 실정을 이해하면 법의 취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 글은 이점에서 정치과정론에 관한 글이다. 평화이전 비평화적이전 간에 국민과 정부간에 설정되는 의미 있는 정치적 관계는 (1) 국가목표의 형성 (2) 의견전파에 관한 규칙제정 (3) 목표를 의견화하는 대변인의 등장 (4) 정부에 대한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의 형성 (5) 이와같은 조직체들과 정부와의 교섭 관계등이다. 이 다섯개의 관계는 정치분야에서의 작업과정이기도 한데 제일 먼저는 목표가 형성되어야 하고 2, 3, 4,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정부 교섭이 행해진다.

정치과정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아이디어들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와같은 목표는 다양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 다량의 소비물자, 산업발전, 이념적 정통성, 민족적 단결, 군사규모의 확대, 질서유지, 경제자립 등은 다 상이한 정치체제에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결과를 지향해 내세워진 목표의 예이다. 목표는 따라서 시민과 정치인 등과 같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반영하며 이들 목표는 서로가 경쟁도 하며 갈등을 일으켜 제각기의 목표

를 국가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

각 사회는 법을 갖고 있는데 법이란 각양의 목표들이 정부 기구를, 예를들어 국회라든지 경찰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결정하는 의견전파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목표는 이를 주장하는 대변인을 갖는다. 대통령 국회의 원 장군 혹은 시민들의 각종 대책위원회 등은 다 대변인들이다. 이들 대변인들은 발표된 자기네들의 목표를 집행코자 행동을 위한 조직체를 형성도 하고 이런 조직체를 사용도 한다. 정당 이익단체 노동조합 농협 직업인단체 등이 이 예이다. 종당에는 이들 단체와 정부 간에 교섭관계가 발생하여 어느 목표가 정치체제에 의하여 채택되는가가 결정된다.

이 다섯개의 과정중 목표설정, 의견전파에 관한 규칙제정, 목표를 의전화하는 대변인의 등장 등 셋을 국민의 의식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과 생각을 퍼내려는 욕구와 이런것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커진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생각하는 백성만이 따라서 삼 백성이다. 산백성이라는 나무가 피어내는 꽃이 조직체들이며 이 나무가 결실해 내는 열매가 대정부교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동학혁명에서 들어 人乃天思想 執綱所 대정부교섭 등의 세 과정은 각각 의식형성 조직 그리고 대정부교섭의 과정을 보여준다.

한 나라에서 이 세 정치과정의 존재양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법이다. 법이 세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세 과정에서 상반되는 법의 모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다음에 검토해 본다.

국민의 의식형성 과정

목표설정에 관하여 평화형성은 현재와 물질지향성을 갖는데 반하여 비평화형은 미래와 윤리 형성을 갖는다. 얼핏 생각할 때에 미래와 윤리는 좋은 말같이 들리며 현재와 물질이란 말은 나쁘게 들린다. 그러나 평화형에서 미래와 윤리를

고려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고려하되 국민으로 하여금 현재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한다는 전제를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반평화형에서는 현재 국민에게 나누워 줄 것을 못주는 대신 미래에 잘살게 되며 지금은 참으라는 권위적 윤리를 강조한다. (1) 지금 당장 국민자자가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의 증가, (2) 군부의 증가, (3) 새 사회의 건설, (4) 인간의 윤리성 양양 등의 목표는 몇개 주요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표들을 현재지향성 목표를 앞세워서 서열화한 것이다. 미국 서구 일본 등은 (1)에 치중하나 (3) (4)를 전연 고려하지 않는다. 비평화형에서는 미래에 잘 살 때까지 참으라고—잘등을 일으키지말라고—하는 것은 보통이며 심한 경우는 새로운 윤리에 입각한 인간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참으라고 한다. 심지어는 일제에서도 보듯 윤리적 인간관계의 창조를 그 내용으로 하여 거의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교육칙어를 칙령이 발표한다.

의견전파에 관한 규칙이 평화형이나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국민으로 (1) 누가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갖는가 그리고 (2) 갖더라도 얼마만큼을 갖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1. 사회가 경제성장하에 기능 분화해 가는데도 통치자의 혈연이나 그를 둘러싼 귀족만이 정보를 갖는 사회는 비평화적이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에서 군사기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형이다. 예를 들어 영국같은 나라가 국민일반이 정보를 갖고있는 전형적인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는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고도로 조직화된 반대당과 같은 기본권의 보장 장치가 있다. 반대의 극에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정보를 갖는 것을 법으로 제한한다. 이와같은 제한의 극단형은 이와같은 제한의 제거도 요청할 수 없게 하는데 있다. 이 경우 시위는 물론이고 신문 방송 통신 도서편찬 집회 등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어 심한 감독과 감시를 받게 된다. 방송 제작

보도 판매 배포 등의 금지가 이 예이다.

2. 평화형에서는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 비평화형에서는 정보의 양이 적어 심한 경우 선거시 단일 후보를 놓고 선거를 하도록 법이 제정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공청회 대통령교서 기자회견 등이 활용되지 않으며 설혹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내놓으려는 정보만을 내놓되 진실은 내놓지 않는다. 이런 기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권자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는 기관이다.

비평화형은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갖고 정보의 분배를 안 하는데 반하여 평화형은 많은 이의 토의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의 정보가 분배된다. 후자의 경우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특정집단이 정보를 통제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의 존재근거를 미래지향성에서 찾을 때 이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제를 하게 된다.

평화형에서의 사상의 대변가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국민중 일부의 생각을 반영하는데 불과하며 일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대변인의 존재를 용인한다. 평화형은 反映의이며 多元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비평화형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회원들의 생각여하를 불문하고 미는 점에서 반영적이지 아니라 독단적이다. 비평화형에서는 대변인 간에 평등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계층관계가 있어, 다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원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비평화형의 사상가는 상부와의 충성을 생명으로 여긴다.

비평화형에서 사상이 타 사상의 등장을 억압하며 내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질서라든지 애국이라든지 하는 전체의 강조가 있는 것이 특색이다. 프랑스의 드골이 알제리아 위기 극복을 내세우며, 프랑코가 내란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회랍의 군사 쿠데타 집단이 혼란시대로 복귀할 수 없다고 언명하는 것이 이 예이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정치

적 견해의 등장은 묵살되며 타견해를 등장시키는 자는 사회에서 제거된다.

목표설정 면에서 비평화형은 미래를 내세우는 점을 전술하였는데 목표판철의 싸움이 이렇게 대변인의 추방에 이르도록 극대화 할 경우 정치체제는 갈등이 창조되기 마련인 현재만을 회피하려는 발상을 갖게 되어 화려한 미래만이 아니라 역시 화려했던 <과거>도 내세워 이러한 과거를 회복할 때까지 국민으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선조들의 무덤이 파헤쳐져 유물이 전시되며 웬만한 사상은 사대주의 사상으로 몰린다.

비평화형의 사상가들에게는 단일한 사상가가 있든지 사상가가 있다면 사상가들 사이에 엄격한 계층관계가 있는 것도 특색이다. 사상가 이면서도 몇사람 안되는 수의 상층이 내세우는 이념에 충성하지 않든지 국가를 사랑하되 통치집단의 눈에 어긋나게 이 애국심을 표현하는 이는 이 계층의 하부에 놓이게 된다.

다원적 관계가 있는 평화형에서는 대변인 간에 상호존경이 있어 그들 상호간에 서열이 자생하여 정치과정을 통하여 안물의 용납과 불용납이 결정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충실하게 자기 분야의 의견을 대변만 하게 된다. 그러나 비평화형에서는 상층에 의하여 대변인이 형성됨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변인들이 없게 되는데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비평화형에서는 의견을 내는 원천인 국민의 주권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비평화형에서는 권리의 주장자가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기만 하다.

조직화 과정

정치적 入力을 창조하는 사회단체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단계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조직체는 교회·대학·언론기관·야당 등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전통 위에서 경제분배를 하는 단

계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조직체는 노동조합·농업협동조합·비보수 정당 등이다.

평화형·비평화형은 국가에서의 이와같은 조직체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최소한 둘이 있다. 하나는 조직체의 수가 사회 내에 많은 것이 평화형이며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비평화형이다. 여기에서 수가 많다 적다하는 말은 자율성을 가진 단체의 수의 다과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견상으로 조직체의 수가 많더라도 자율성이 없는 단체는 조직체의 수가 적은 것으로 계산된다. 평화형과 비평화형을 구분짓는 다른 하나의 기준은 각 조직체간의 관계가 평등적이나 계층적이나에 있다.

조직체의 수의 면에서 볼 때에 그 수가 제일 적은 나라는 공산권 국가이다. 1930년과 1940년대에서의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작은 수>의 예이다. 작은 수와 큰 수 국가의 비교를 돕기 위해 일본 유고슬라비아 영미국가 등을 등장시켜본다. 소련이 맨 끝에 위치한 <작은 수 국가>이며 그다음 위치에 오는 나라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일본이며 <많은 수 국가>의 전형이 영미 양국이다.

동일 사회내의 다수 조직체간의 관계가 가장 계층적인 예를 역시 공산국가에서 본다. 예를 들면 작가동맹 같은 당 이외의 단체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당에의 복종인 국가가 공산국가이다. 이런 곳에서는 비록 사회단체의 이름이 많더라도 그들의 활동은 당에 의해서 통제된다. 상술한 유고슬라비아 일본 영미국의 순위는 바로 곧 사회단체 자율의 순위이기도 하다.

평화형이나 비평화형이나는 이와 같이 조직체의 수의 다과와 조직체간의 관계가 계층적이나 혹은 융통성이 있느냐로 구분된다. 평화형에는 많은 수의 단체들이 있는데 회원은 여러 단체에 중복되게 가입을 한다. 평화형에서는 조직체마다 구성원의 수, 예산의 규모, 조직체가 내세우는 목적이 특징적

이나 그렇지 않느냐 등에서 차등을 질수는 있으나 사회전체를 위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중요성에서 차등을 짓기는 극히 어렵다.

이에 반하여 비평화형에서는 정치조직체들은 계층적 지위와 조직상호간의 관계면에서 좀더 명확하게 등급화된다. 비평화형에서는 조직간의 명령과 의사소통의 경로를 그려낼 수가 있을 정도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상층과의 연결때문에 자율적인 조직체의 수가 극히 적다. 평화형에서는 조직체는 물론 조직체 내의 구성원에게도 자율성을 지닐 것이 요청된다.

이상의 두 특징 이외에 두 형을 특징짓는 현상은 평화형에서는 조직체들이 정치의 입력단계에서 많은 정치적이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 집단들이 결정자성자에게 어느 결정을 내릴것인가를 알리게 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것이다. 그런데 비평화형에서는 조직체들은 계층 상부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점이 두 형을 구분짓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며 이 현상때문에 서로가 자신을 일컬어 민주적이라고 말하게 하고도 있다. 두 형태는 다 정치참여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양제도가 다 민주적이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비평화형과 평화형에서 다 정치참여가 있으나 다만 정치참여가 행하여지는 정치과정상의 지점이 상이하하다.

양제도의 차이는 양제도가 지니는 목표설정과 이 목표를 전파하는 규칙의 차이에 기인한다. 대변인들간의 갈등을 조정한다기 보다는 대변인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비평화형에서는 주요결정이 만들어진 후에야 참여가 행해진다. 피치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조직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민의 지시를 받고 짜 설계된 조직과는 대단히 상이하하다.

이렇게 볼때에 비평화형과 평화형을 구분짓는 조직상의 특

정의 하나는 소식이 전달되는 방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양제도에든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식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식도 있으나 이 양자의 비율이 서로 다르며 소식의 흐름을 결정에 연결시키는 능력도 서로가 다르다. 비평화형은 그의 의사소통 역량을 내리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의사소통을 비평화체제는 그의 명령이 잘 이행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집행을 요구한 구조는 국민의 요구를 먼저 알아보고 그 후에 자기의 지시가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네가 듣는 편이냐 말하는 편이냐가 문제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식의 흐름이 정책형성에 자극제가 되고 있는가. 혹은 이미 계획까지된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려면 목표설정이 현실적 국민의 행복에 맞추어져야 하고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와의 교섭과정

평화·비평화의 대정부 교섭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가지로 생각해 본다. 그 하나의 기준은 어디에서 교섭이 행해지느냐인데 교섭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서 누가 교섭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어떻게 사람들이 교섭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목표가 성취되는가가 결정된다.

체제 상층에서의 교섭이란 제총구조의 상부나 상부의 근처에서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 경우 비교적 소수의 사람만을 포함시키며 극단의 예로서 절대군주하에서는 단 한사람만이 포함된다. 체제 하층에서의 교섭이란 분산된 교섭을 뜻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고 교섭이 행하여지는 장소도 많게 된다. 교섭이란 상호 경쟁하는 단체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위냐 아래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두 정당의 목표가 다르고 두 정당이 다 그 목표를 전파했으며 각각 대변인을 갖고 있으며 각각이 정당

이라는 조직체라 할지라도 서로가 교섭을 안가졌다면 이 양당은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양측이 만나는데 이 만나는 장소가 상층에서만 있으면 상층의 문제만이 문제시된다.

교섭의 장소가 중요한만큼 교섭의 스타일 즉 어떻게 교섭자들이 교섭을 하는가도 중요하다. 교섭의 스타일을 양극단형으로 나누어 한쪽끝에는 합의형을 다른쪽 끝에는 분열형을 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상의 두 관점은 네가지 형의 교섭형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상부장소에서 분열하는 형, 둘은 분산해서 합의하는 형이라는 두 개의 <안정형>과, 상부장소에서 합의하는 형과 분산해서 분열하는 형이라는 두 개의 <불안정형>이다.

프랑스와 소련이 각각 불안정형인데 프랑스에서는 분산된 장소에서의 교섭이 있으나 분열이 있으며 오늘의 소련에서는 상부에서 합의를 모색중이다. 상부장소에서 교섭을 행하는데 상부가 권력과 돈을 갖고서 상대방을 통합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에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상부와 분열>형은 권력과 금력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있으나 국민의 적대감을 해소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평화형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법을 통하여 수십만개에 이르는 기업체에서의 노사간의 단체교섭마저도 기업내의 자율성에 맡기자 않고 일일히 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르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분산된 합의형>의 교섭을 평화형으로 지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상호간의 갈등이 최하단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참으로 국민적 차원의 것이 아닌 한 중앙정부는 관련이 없게 된다. 지방에서 해결된 사례들은 일종의 판형이 된다. 경제적 결정은 다 개별 기업체에서 행하여진다. 문화적 결정은 일개 출판사나 책의 저자가 행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갈등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일에 사회전반에

저항을 표시하게도 된다.

상부에서의 분열형 교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밖에는 없다.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개념이 이 폐단을 고쳐보자는 시도인데 이 제도하에서는 상부가 여전히 권한을 가지나 반대자를 체제내에 포함시키는 합의형을 도입한다. 이 경우 반대자는 입력단계에서 지방분권화된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이상에서 교섭형태를 분류해 보았다. 비평화형에서의 교섭은 계층구조 안에서 행하여 지는데 많은 결정이 계층의 상부에서 행하여 짐으로 하부 수준에서의 교섭량은 상부에서 보다 훨씬 적다. 다원화 제도를 통한 교섭의 성과와는 달리 이 경우에 교섭의 흐름이 상부로만 올라 간다. 다원화 제도에서의 교섭의 특징은 합의를 모색하여 타협점을 발견해 나가는 데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가 이 예이다.

비평화형에서의 정치적 교섭에서는 목표를 전파하는 규칙이 정부의 정보 전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보도 부족한 데다가 교섭의 양식이 원색적인 대답을 불사하는 분열형을 택하기 때문에 교섭에서 실패하는 측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타협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패자의 퇴장과 상대방이 비합법적이라는 패자의 주장 같은 것을 쉽게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된다.

비평화형에서 평화형으로의 이행은 체제유지자의 자의적 반성에 의하여 가능하지는 않다. 체제유지를 통하여 얻는 혜택을 포기하기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의적 반성의 촉구로서 가능할까? 타의적 반성의 촉구만을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타의적 반성의 촉구가 있을 때 비평화형이 평화형으로 이행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 조건이 성숙해야 한다. 그러면 비평화형을 평화형으로 이행케 하는 객관적 상황은 무엇인가? 이는 <집행의 불능>이라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비평화형에서는 집행을 체제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여 일의 성과가 나면 좋은데 소기의 성과가 나지를 않을 때 위기가 온다.

성과가 안오르는 만큼 부작용도 생겨나는 것이 문제이다. 분배의 몫이 자기에게는 적다는 것, 높르는 것을 뺏가로 하여 얻은 자의 요란스러운 부의 전시, 누름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희생자의 비참 등이 돋보이는 것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과다 권력행사에서 생기는 경제·사회·정치 면에서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평화형이 좋아질 수 있는, 아니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형을 계속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비결은 최소한 일이 안될 때에 일이 될 정도만큼이라도 자기변화를 하는 일이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개방체제를 갖추고 국민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주의를 고쳐나가는 일도 이 자기 변화의 하나이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체제내에 용납해 나가는 것도 이 자기 변화의 예이다.

그러나 자기변화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시행한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의 개정이라는 절차는 성격상 완만한 데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경우 법의 폐기는 기득권의 포기를 뜻하기 때문에 변의 과정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씨울의소리 1979년 7월호〉

1. 문제 제기

우리 교인 중 몇분의 최근 특징은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일이다. 이 전형적 인물은 당회장이신 이해영 목사다. 예년에 장기 결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 몇사람 그라고 저 이렇게 좀 몸이 아팠다. 주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된 것 혹은 회복되어나갈 것을 믿으며 감사한다.

제 경우 몸이 좀 아팠을 때 생각했던 것이 있다. 이는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인데 안가고 말았다. 제 집이 이사한 후는 단골의사가 멀게 되어 가기가 귀찮다는 것이 안간 이유다. 의사에게 안 간 다른 한 이유——그 이유가 정말 이유인데——는 갔겠자 그 의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 단골 노인 의사는 거의 엉터리 의사에 가깝다. 웬만한 병으로 가면 참으라고만 하고 약을 잘 안지어 준다. 언젠가는 의사에게 갔다가 어느 환자의 아버지 하고 의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일이 있다. 찾아온 노인 말이 자기 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암만해도 관절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의사말이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아는가. <좀 두고 보십시다>이다. 좀 두고 봐야 할 이유도 그 의사는

말했는데 「관절염이라 해도 무릎 안에 기껏 들은 것은 나쁜 고름이며 이 나쁜 고름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물론 나쁜 고름이 나올 때까지 환자가 살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 의사의 말에서 병을 참아야 할 두가지 취지를 간추려 본다. 하나는 아픈 것을 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에 대한 새 <견제조직>의 생성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어찌 육신의 몸 낮기만을 염려하겠는가. 우리의 마음의 병 낮기도 육신의 병 낮기와 같은 데가 있다.

1. 우선 참을 것은 아픈 것,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관절염 정도의 아픔을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참아야 할 세상은 그냥 악한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악한 세상이다. 가장 악한 세상을 묘사해주는 글을 우리는 야고보서 제 5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보면 (1) 높아지며 돈이 있게 된 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품꾼의 소리 지름과 대항도 하지 않은 의인을 죽인 것 등이 그 예이다. 분노의 이유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아지며 돈이 있게 된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의 자원 낭비에 대한 분노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사회구성원들은 노력을 해봤자 성공을 보장하는 규칙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생활에의 의욕을 잃게 된다. (2) 가장 악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만이 혹사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나아가서 자연이 제 기능을 발휘 않고 일종의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으며 금은이 녹이 슬며 금은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

야고보서 5장이 제시하는 가장 악한 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1) 기득권의 부당행사—정당한 기득권 행사는 바람직한 일이지만—가 밑의 사람과 자연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자행이 된다. 그리고 (2) 이와같은 자행은 대항도 하지 않은 의인을 정죄하여 죽임으로 완성된다.

전자를 행정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둘째로 참을 것은 아픈 것만이 아니라 병이 나아가는 것을 참아야 한다. 이 두 번째의 참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시달림을 받을 자가 최소한 보호를 받아 나날 구조가 생성—마치 병에 대한 <새 견제조직>의 생성을 기다리듯—되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가장 나쁜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좀더 밝으며 긍정적인 참음을 우리는 참아야 한다. 따라서 참음이란 우선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참음이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룩하려는 형제나 동지들 끼리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야고보 5:9). 상대방이 운동을 좌절시키는 비결도 이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전술에 있다. 못난 운동가의 특징은 대의를 안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일이다.

또한 이 긍정적 참음은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려서 참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기다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물리적 구체성을 가지고 기다리며, 읍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기다리듯 생명의 경험 같은 구체성을 가지고 기다리며,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의 밝아움을 기다리듯 기다려야 한다. 이런 기다림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것도 야고보서 제 5장이다.

2. 두가지 대안

이렇게 긍정적이며 서로 형제 간에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는 구체적인 참음의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딱 하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야고보서 5장은 말한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5:7)이다.

그런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는 주의 강림을 가만히 앉

아 기다리고만 있지를 않는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의 하나는 예수 몸이신 교회이요, 다른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마태 25장에 시사됨)에게 뭔가를 해주는 일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일이 생기도록 참는 것은 참아야 할 가장 나쁜 세상의 성격과 견줄 때에 남독이 간다. 왜냐하면 가장 악한 세상에서 가장 시달림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일 것이니까 말이다.

근대화 역사를 백성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간 역사라고 본다면, 근대화의 초기단계는 중산층에게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를 허용한 단계이요, 후기단계는 저소득층에게 복지사회를 허용한 단계이다. 그리고 이 근대화 초기에 형성된 것을 헌정질서라고 부른다면 근대화 후기에 형성된 것을 사회정의 혹은 복지헌정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헌정질서시대에 생성된 사회 단체는 대학, 언론기관, 야당 등이며 사회정의질서 시대에 생성된 사회단체는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진 정당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 참음을 위한 대안이 이렇게 둘이 있다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일이, 즉 근대화 제도가 반드시 기독교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 논의가 나올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근대화에 있어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들은 가르침이 그대로 곧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에서 실현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상이 독점과 독재의 거부사상으로, 원죄사상이 제도의 필요로, 성서의 존중사상이 합리성애의 복종으로, 그리고 대속사상이 선열들, 우리로 치면 사육신, 생육신, 동학란에 돌아간 분들, 의병으로 돌아간 분들,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간 분들, 4.19에 돌아간

분들 등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으로 우리러 보는 사상으로 옮겨진 것이다.

Catherine이나 Thuillier 같은 행정철학자는 이 관계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책인 《introduction a une Philosophie de L'administration》에서 이들은 근대 제도란 고작 의견조정을 해 중간치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와 정보과학 지향적인 것이지 가치와 도덕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구조에서는 의견, 권력, 금력 등의 독점이 배제된다는 점만을 봐도 기독교의 부당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반 위에 제도가 놓여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중간치 찾기의 구조는 무언가를 끝 이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룩되어 나갈 전망을 보여 주며 민주적인 구조를 오게 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만민이 높이며 우리러 본다는 점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한다.

3. 교회의 과제

교회와 세속사회 질서라는 두 대안 중 교회가 존재하고 세속사회 질서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의 병이 치유되어가는 <전망>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현실적으로 물질의 분배를 바라는 래디칼이 지배하려고 과격하게 시도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경우의 전형적 래디칼의 예는 공산주의자이다. 한편 교회는 악한 정치와 결탁을 하며 이를 견제하기는 커녕 이를 오히려 축복해주는 역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세속사회질서와 정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이전의 전통을 계승해야 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성공한 나라들의 교회의 전통도 계승해야 한다. 구약사에서도 교회가 배울 것 안에는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가 포함돼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교회가 부당한 기득권 행사자편에 안 서야 한다. 농경시대에서의 생산 단위는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나 비기득권자인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아벨,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 전형적 예이다.

아벨의 죽음 이후 특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둘째 아들 살리기 에 있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견주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의 탄생과 생존이 하나님 보기에 끔찍하고 귀중했던 첫 사람은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만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학이나 언론 기관이나 야당이니 노동조합이니 농업협동조합이니와 같은 둘째 아들들이 이어받은 첫 조상으로서의 첫사람, 야곱은 다음의 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1) 기득권의 부당행사를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둘째 아들인 것, (2) 기득권자인 첫째 아들이 죽이려는 데서 살아 남은 자인 것, 그리고 (3) 이 살아남은 자가 개인적으로는 선하지가 못하고 악한 것——야곱은 오늘로 치면 땅문서 등기를 사기한 사람이며 외삼촌 집에서의 행실도 깨끗하지 않다——등이 이 셋이다.

2. 교회는 교회와 교인들의 善 능력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 이 점은 야곱과는 달리 요셉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돈과 여자 문제에서 깨끗했으며 약자가 되어 만나게 된 자기의 형들을 보호해준 분이다.

3. 교회는 특히 정적을 보복하지 않을 것을 배우며 가르쳐야 한다. 이 점에서 첫 모범을 보인 분은 살인한 카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점을 자신의 실력으로 행동한 분은 형들을 살려준 요셉이며 이를 완성한 분은 예수이다.

4. 의식화 안된 못난 민중일지라도 교회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모세가 이런 분이다

5. 끝으로 예수 자신 때문에 생겨진 전통인데 우리는 부당한 기득권자에게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당해서 죽은 분을 흠모해야 한다.

근대화과정에서 특기할 전통으로 최소한 (1) 악의 도태를 미리 방지한 청교도 생활, (2) 악의 정지를 외친 예언자 기능, 그리고 악을 견제할 전전한 사회집단—전술한 헌정질서와 사회정의질서 시기에서 보는—의 형성을 도운 일 등이 열거되어야 한다. 교회와 세속사회질서란 주님의 재림을 그냥이 아니라, 길이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만들어내는 두 대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도 감히 긴 세월을 이미 기다려온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야고보와 같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 까지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싶다.

〈現存 1980년 12월 108호〉

민주사회의 偶像

우상숭배는 곧 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있어서는 안 될 우상들이란 어떤 것들일까? 이 우상들이 사라져 갈 과정을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 이런 물음에 대답코자함이 이 글이다. 우상의 해체과정에서 등장되는 두 단계현상 즉 이 글이 만들어 낸 말인 <새힘>과 <개인이라는 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집단이다. 새힘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집단은 대학 언론기관 야당 등이며 개인이라는 힘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집단은 농민집단과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악에의 대안을 의미 있는 사회집단의 형성으로 본점에서 이글의 제목을 사회집단의 등장 과정이라고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1. 여러 신들

우선 참 신과 거짓 신이 있다. 참신은 평등하고 존귀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과 이 시민들의 정당한 존경을 받는 웃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웃사람도 참신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십계명에서 보면 부모와 타인—생명 재산 부인 명에 등을 지닌 타인—들을 존중함을 받아야 할 이 즉 웃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란 정상적인 상하관계가 있는 사회다. 전전사회의 핵이 상하간의 정상적인 계층관계로 이루어진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개의 그림을 그려보자.

사각형 아래에 또 사각형을 그리고 그 사이를 줄로 그어 만드는 이른바 조직도표는 전전사회에서의 참신들의 그림이다. 삼위일체의 신도 조직도표로 그리면 그 진의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 경우는 사각형을 한 제층 더 그리면 되는데, 이때의 제층질서는 맨 위가 아버지인 성부, 그 다음 중간이 아들인 성자, 그리고 맨 아래가 성신이 된다. 말하자면 삼대를 정돈하는 것이다. 이런 안목으로 국회, 행정수반, 공무원—성신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자기 가지고 살아 나가야하는—으로 정리해 봐도 좋다. 어떻든 전전사회에서의 참신은 사람과 그 웃사람의 둘 뿐이다.

그러나 <사람과 그 웃사람>과의 사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좋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면 무엇이 혼하다는 말일까? 혼한 것은 아랫 사람의 웃 사람에 대한 반란과 웃사람의 아랫 사람에 대한 억압의 두 형태이다. 어쩌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보는 아담의 잘못은 이 둘 중 반란형일 것이다. 악대가 바늘 구멍에는 들어가도 부자는 천국에 못들어간다는 부자는 아마 억압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신인 사람과 그 웃사람 사이에는 반란이나 억압이 안보이는 제층 현상만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하관계는 누름과 따름 사이에 갈등을 볼 수가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아랫 사람은 웃사람의 권한 행사, 지식, 돈을 가진 것 등에 승복을 하게 되며 웃사람은 이런 것을 갖되 정당하게 가진 것, 즉 아랫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갖거나 아랫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가진 것은 아닌 것이다. 전전사회는 질서를 갖자는 것이며 반란과 억압을 피하자는 것이다. 참신 외에 거짓 신이 있다면 어떤 신들이 있을까? 지도자, 전체의 강조, 일, 기술발전의 네 신이 있다고 본다.

우상으로서의 지도자는 상술한 반란과 억압을 자행하는 자

이다. 반란이란 국회에 대한 행정의 우위를, 억압이란 행정 내의 분권화파괴를 의미하게 된다. 전체의 강조란 사람과 웃사람 같은 개인 보다도 더 강조되는 민족주의를 지칭한다. 전체의 강조란 따라서 민주주의 보다도 강조되는 사상의 체제인 점에서 하나의 도그마다. 예를들어 동양제일의 대학이 될 때까지는 교수의 봉급을 안 올린다는 발상은 교수라는 개인을 희생으로 하여 대학이라는 전체를 강조하는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일〉이라는 우상은 〈전체의 강조〉라는 우상보다도 더 우상으로 판단해 내기가 어려운 우상이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나 전체의 강조라는 우상보다는 좀더 선질의 우상인지도 모른다. 전시효과, 사회간접자본투자, 근대화, 민족중흥의 내용 등은 〈일〉이라는 우상의 예이다. 기술발전이 우상화할 가능성은 기술발전이 다른 세 우상들, 즉 지도자, 전체의 강조 그리고 일 등의 도구 수단 노예가 될 때에 생긴다. 교육이 관의 주도 하에서만 교육이며, 민족주의를 구실삼은 교육이며, 효율만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면, 교육도 우상화한다. 이들 세 신들은 개인이라는 참신이 아니다. 개인이라는 참신에 복종하지 않는 교육은 지도자라는 우상 때문에 견제능력을 상실한 인간형, 전체의 강조라는 우상 때문에 반평화 반국제적 인간형, 일이라는 우상 때문에 목적의 수단신성시 예를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돈벌 사람이 제일이라는 인간형, 그리고 기술발전이라는 우상 때문에 철학이 빈곤한 인간형을 만들 것이 예견되게 된다.

2. 신들 간의 싸움

사람과 그 웃사람 두 사이만을 제외하고는 신들끼리 싸우기 마련이다. 이 싸움은 참신을 탄생케 하는 과정인 점에서 있어야만 하는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를 정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느냐를

정하는 것이 싸움이다. 여섯 신들간의 주종관계를 다음 표와 같이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주	종	지도자/전체의 강조/웃사람	일 기술발전	사 람
지도자/전체의 강조/웃사람	1) 지배하는 힘	2)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	6) 개인이라는 힘 밑에서의 효율	
일	3) 새힘과 4) 새힘 밑에서의 효율			
사	람	5) 개인이라는 힘		

지배하는 힘 : 우선 힘들끼리 싸워서 〈지배하는 힘〉이 남게 된다. 지도자, 전체의 강조, 웃사람 삼자간의 주종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다음 여섯 가지이다.

주	종
1) 지도자	전체의 강조
2) 전체의 강조	지도자
3) 전체의 강조	웃사람
4) 웃사람	전체의 강조
5) 지도자	웃사람
6) 웃사람	지도자

이 싸움에서 웃사람 즉 사회내의 정상 상부층이 〈전체의 강조〉라는 잘못과 지도자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4번과 6번 현상은 우상의 지배를 애당초에 저지한 행복스러운 상태다. 전체의 강조를 통치에 이용하지 않은 2번 현상도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두 현상은 지도자가 〈전체의 강조〉를 이용하며 지도자가 사회내의 정상계층인 웃사람들을 굴복시키는 1번과 5번의 두현상이다. 나쁜현상으로 1번과 5번 이외에 활용될 현상은 3번 즉 전체의 강조로 계층을 누르는 현상이다. 1,3,5번 현상을 간추리면 1,3과

5 둘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1,3은 5를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지배하는 힘이란 지도자가 전체의 강조를 내세워 국민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요약해 설명할 수가 있다. 「짐은 곧 국가이다」라는 어느 프랑스 왕의 유명한 말은 따라서 이 지배하는 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 :여기의 효율이란 효과와 능률을 합한 말이다. 효과가 있다는 말은 하려고 한일이 되었다는 말이다. 능률이란 이 된 일이 손쉽게 되었느냐 혹은 힘들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말이다. 어느 아이는 한번만에 우두가 되었는데 다른 아이는 아홉번째에 비로소 우두가 되었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능률이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능률의 향상은 인간의 기술발전을 통하여 이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률이란 곧 기술발전을 뜻한다. 지배하는 힘밑에서의 효율증대 작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시 하나님이 첫날부터 엿새날까지 한 일과 같은데가 있다. 엿새간에 한 하나님의 일은 둘이다. 하나는 사람이 이용할 환경을 만든 일, 즉 효과의 창조이다. 하늘, 땅, 물, 채소, 생물……그러니까 요즘 말로 경제계획 같은 것을 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같은 것이다. 도로를 건설하며 공업단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일은 사람을 지으신 일이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일이다. 여기의 생기에 해당하는 일은 오늘에서는 무엇일까? 기술발전 즉 능률향상이다. 기술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고 분업사회가 움직인다.

이와같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지도자가 시작 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도자는 많은 옛날왕들 같이 그저 엔조이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의 지도자들은 <엔조이 플러스 효율>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다. 따라서 지도자로 하여금 <엔조이

플러스 효율>의 방식채택을 못하게 하고 다만 <최소한의 엔조이>만을 허용하는 체제가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본 리더쉽 스타일이다.

선진국들은 이 효율작업을 지도자에게 안 맡기고 자기 스스로 한 점을 우리는 유의하여야 한다. 앵글로 색슨 문화에서 이런 현상을 본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건설도 그런 것이다. 덴마크의 건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땀흘려 일한 진지한 목사들을 연상하며, 스위스의 건설을 생각할 때에 깨끗한 마을과 흔들리지 않는 손을 가진 청교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에 지배하는 힘이 효율증대를 내세우고 나서며 그래서 권력형 부패 같은 부작용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민간 스스로의 작성과 규율이 부족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들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반란과 억압을 활용하는 일종의 우상인 지도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참신인 백성이 잠자고 있는데서 생기는 비극이다. 백성도 웃사람도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지도자라도 잠 안자고 일하는 것이 이른바 개발독재의 근거이다.

새 힘과 새힘 밑에서의 효율 :지도자가 이렇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내세우다 보면 내세운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이 잘 안되며 그 이유는 지도자의 우상활동 때문인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지배하는 힘밑에서의 효율운동은 최소한 다음의 두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정당성을 띠게 된다.

① 내세운 일이 안된다. 일인당 년소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이 내세운 일이 안되는 한 예이다. 월남에서 보듯 비행장에는 수백대의 군사용 제트기가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한데도 그 비행기가 군사적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하늘에 떠보지도 못하는 것도 한 예가 된다.

② 부작용이 생긴다. 누름은 눌림을 당한 이가 누름 속에

서도 양식을 발휘하는 한 그 누름이 정당하다. 눌림을 당한 이가 만일에 일이 잘되게 하기위해 해야할 말도 누름이 무서워 제대로 못하게 되며 그러다보니 견제자는 드디어는 추방되며 이쥘뵈니까 일반국민은 정의롭게 살려는 의욕과 용기를 상실케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부정적 현상이 안 일어나고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겨난다고 전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루는 경제건설을 하던 일꾼이 지도자에게 와서 「당신 덕분에 일을 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다만 실정을 모르는 당신의 측근자들 즉 강경파 여당들이 이래라 저래라해서 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일을 못하였으며 그래서 경제 계획을 예정대로 못 수행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하소연을 하게 된다. 일꾼들이 지도자에게 당신 덕분에 일을 하게 되어 고맙다는 말하자면 제사까지도 드렸기 때문에 지도자의 마음은 좀 유연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가 유연해진 경우 지도자가 그의 측근자들을 불러서 일꾼들에게 쓸데없는 간섭을 말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 말의 선언은 체제평화への 거보를 의미하게 된다.

일이나 기술발전에 우상들이 복종하는 현상은 이 지도자가 복종하는 현상 즉 지도층의 강경파가 복종하는 현상 이외에 두 현상이 더 있다. 그 하나는 전체의 강조가 일이나 기술발전에 복종하는 현상이다. 무역증대를 위하여는 재래의 국가관을 시정하여 비적성 공산국가와도 교역을 한다는 식의 변화가 한 예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각분야가 일에 매여 들어가 봉사하는 의무부담—권리신장이 아니다—을 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의 의무 부담은 「나 지도자 밑에 들어와 꿈쩍말고 있으라」는 식의 의무부담과는 좀 다르며 따라서 전기인 지배하는 힘시기에 비하면 이는 좋은 의무부담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지도자/전체의 강조/제층의 약세화를 가져오는 힘을

여기에 지칭하여 <새힘>으로 일컫는다. 자율화하는 교회 대학 언론기관 길드라는 조직들 그리고 야당 등과 같은 사회집단들이 이새힘의 단계에 등장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되면 기껏 있다는 조직이 내세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실상 존재하는 것은 중립화 하지 못한 경찰과 친여단체뿐인 지배라는 힘 상황과는 다르게 된다. 새힘 하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등장하는 사회집단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들의 동업단체인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과 같은 것 들이다.

개인이라는 힘과 개인이라는 힘 밑에서의 효율 : 이것이 곧 참신의 등장 상태이다. 개인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여 지도자도 내셔널리즘도 사회계층도 봉사를 한다는 것이며, 효과와 능률도 개인이익과 권익 위주로 평가가 되는 상태이다. 이개인이라는 힘 단계에서 등장되는 의미있는 단체는 노사간에 단체협약 맺기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농산물 가격을 공산물가격에 맞추어 억울하지 않게 받아내고자 하는 농민집단의 둘 뿐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참신의 탄생과정을 (1) 지배하는 힘 (2)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 (3) 새힘 (4) 새힘 밑에서의 효율 (5) 개인이라는 힘 (6) 개인이라는 힘 밑에서의 효율로 서열화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놓고서 생각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자식간에 보는 생활주변사이다. 어린자식이 부모를 볼 때에 아마 지배하는 힘 만큼이나 큰것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모의 지배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무너지기 마련이다. 마치 지배하는 힘밑에서의 효율 작업이 있듯이 부모가 재미를 보는 성행위라는 작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힘인 자식이 출생한다. 이 자식이 마치 새힘 밑에서의 효율이 증대하듯 성장하니까 드디어는 자식의 결혼과 분가라는 획기적인 자율단계 이를테면 개인이라는 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분가한 자식은 끝내는 자기의 부모가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 고유의 체제하에서 자기의 것을 늘려가는 것

이다.

3. 참신의 할일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억압을 하는 자가 우상임이 밝혀졌다. 그러기에 출애굽에서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해 저질른 우상숭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에서 생겨진 물질적 혜택에 안주하는 우상숭배이다. 비록 바로왕 밑에서 고역을 하였지만 가마솔 속에서 고기국을 먹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모가 이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무서워 하는 우상숭배이다. 가나안 현지를 탐험한 이들이 현지인들을 무서워 했다는 것 때문에 탐험일자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 하나님은 무서워한 이들을 가나안에 못들게 하고 있다. 억압은 무서워 할만 하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곧 악이다. 악의 사회적 인식이 요청될 정도로 우상숭배가 팽배한 상황을 다음에 구조화 해 본다.

두가지 일 : 전술한 효율을 일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기로 한다. 일에는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일/새힘 밑에서의 일/개인이란 힘 밑에서의 일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이 세가지 일을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일과 지배하는 힘 밑이 아닌 데서 이룩되는 일의 두가지로 양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일의 고전적 표현은 부국강병시책의 시행이다. 이에 해당하는 근대적 표현은 바로 근대화 작업 자체이다. 지배하는 힘 밑이 아닌데서 이룩되는 일의 근대적 표현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발전, 노동조합의 정착화 등이다. 전자는 환경조성적이며 물질적인 목표를 지닌 일임에 반하여 후자는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목표를 지닌 일이다. 따라서 전자가 이룩되지 않으면 국민을 불만케 한다. 이에 반해 후자가 이룩되지 않으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건설이 되면 국민의 불편이 덜

어지나 그렇다고 국민 각자가 기뻐서 날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각자의 참여에서만 온다. 사람 개인 개인에게도 이런 두 감정이 병행한다. 예를 소련에 거주했을 당시의 술제니친에서 든다면 늘 감시가 뒤따르며 직장에서 쫓겨나 먹을 것이 부족했을 그에게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불만이 있었다고 짐작이 된다. 그러나 그에게 해소되지 않는 불만이 있었다고 조국에 충성을 다한 보람마저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니 해소되지 않는 불만이 있었길래 불만 속에서도 오히려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만족을 추구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위로 일을 우리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일과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일로 양분하기로 한다.

세 가지 방법 : 상하간의 관계에 억압형, 반란형 그리고 정상형의 세가지가 있음을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우상현상을 관찰하는 모형 : 두가지 일과 세가지 방법을 관계지어서 고찰할 수 있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다. 이 표의 ①에 해당하는 형태가 지배하는 힘의 형태이다. 프랑스의 예를 든다면 이때는 왕정시기이다. 이 표에서 2에 해당하는 시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시기이다. 이 표에서 3에 해당하는 시기는 지배하는 힘 밑에서의 효율시기이며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시기이다.

방법	일	불만불해소		불만해소	
		만족 불충족	만족 충족	만족 불충족	만족 충족
억	압	1		3	
반	란		2		
정	상				4

이 표에서 4에 해당하는 시기가 새 힘단계 이후의 시기이며 프랑스의 오늘이다. 시기 3이 전절에서 언급한, 일이 안되며 부작용이 생긴다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경우

국민일반은 그의 생존을 위해 불가불 우상숭배를 하는 시기이다. 이 경우의 우상은 불만해소라는 일이 만들어준 혜택속에 안주하는 일 [표의 횡란에 해당하는 것]과 억압에 굴종하는 일 [표의 종란에 해당하는 것]의 둘이다.

참신을 믿는이가 할 일은 우상이 하는 일에 대하여 반대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전전사회의 시민들이 늘 유의하여 담당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① 판이 나서서 일하기 전에 민이 나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창조시 하나님이 첫날에서 셋째까지 하신 그런 일을 민이 하라는 것이다. 판이 하는 일을 민이 하라는 것이다. 판이 하는 일을 내가 할터인데 왜 판이 하는가 하고 의심하는 정치의식을 anti-governmentalism이라고 한다.

② 해당 사회의 문제를 처리할 이론과 정책의 제시를 민이 한다. 제시된 이론과 정책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판이 자행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행동의 준거점을 마련해 준 이 일도 창조시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한 일인 것을 알수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규범의 제창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선악의 궁극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다.

③ 참신은 거짓신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말하자면 시민은 체제를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체제속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판을 무슨 적과 같이 생각하는 태도는 참신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로마제국을 회개시켰을 당시 많은 체제 비판자들 즉 기독교인 공무원들이 체제속에 있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구약에서 보는 다니엘 같은 이도 체제속에서 체제를 회개시키려고 최선을 다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거짓신들이 회개 안하려 해도 안할 수 없는 <회개의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데 참신들은 솔선해야 한다. 여기에서 회개의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때에 이는 정치 및 사회적 압력의 조성을 뜻한다. 새힘과 개인이라는 힘 단계에서의 단체들

즉 교회 대학 언론기관 야당 노동조합 농민집단 등의 발전이 요청된다. 외부에 있는 이와 같은 단체들의 압력하에서 행정과 정치의 내부구조도 분권화가 될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권력남용을 회개한다는 것을 뜻한다. 6일까지 일을 하시고 7일 때는 쉬시며 다시 8일 때는 일을 하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에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일을 다 사람에게 맡기시고는 안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위의 셋째 넷째의 일도 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한 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제로 하여금 안식을 하도록 도와 주며 또 안식을 하계끔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일은 역시 하나님의 모범을 뒤따르는 일이다.

전전사회의 질은 우상의 대두를 경계하는 예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전전사회의 시민은 이런 의미의 바람직한 기우심을 지닌채 해당사회의 우상을 지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 전체의 강조, 일, 기술발전 등의 위치에 넣어 의심해볼 그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줄 알아야 한다. 의심은 개인과 개인이 사는 사회의 전전도를 높여 주는데, 이 사회의 전전도를 높여 주는 해당사회의 요소부분은 전술한 새힘과 개인이라는 힘 단계에서 등장하는 사회 단체들이다.

<서울의 소리 1978. 6.>